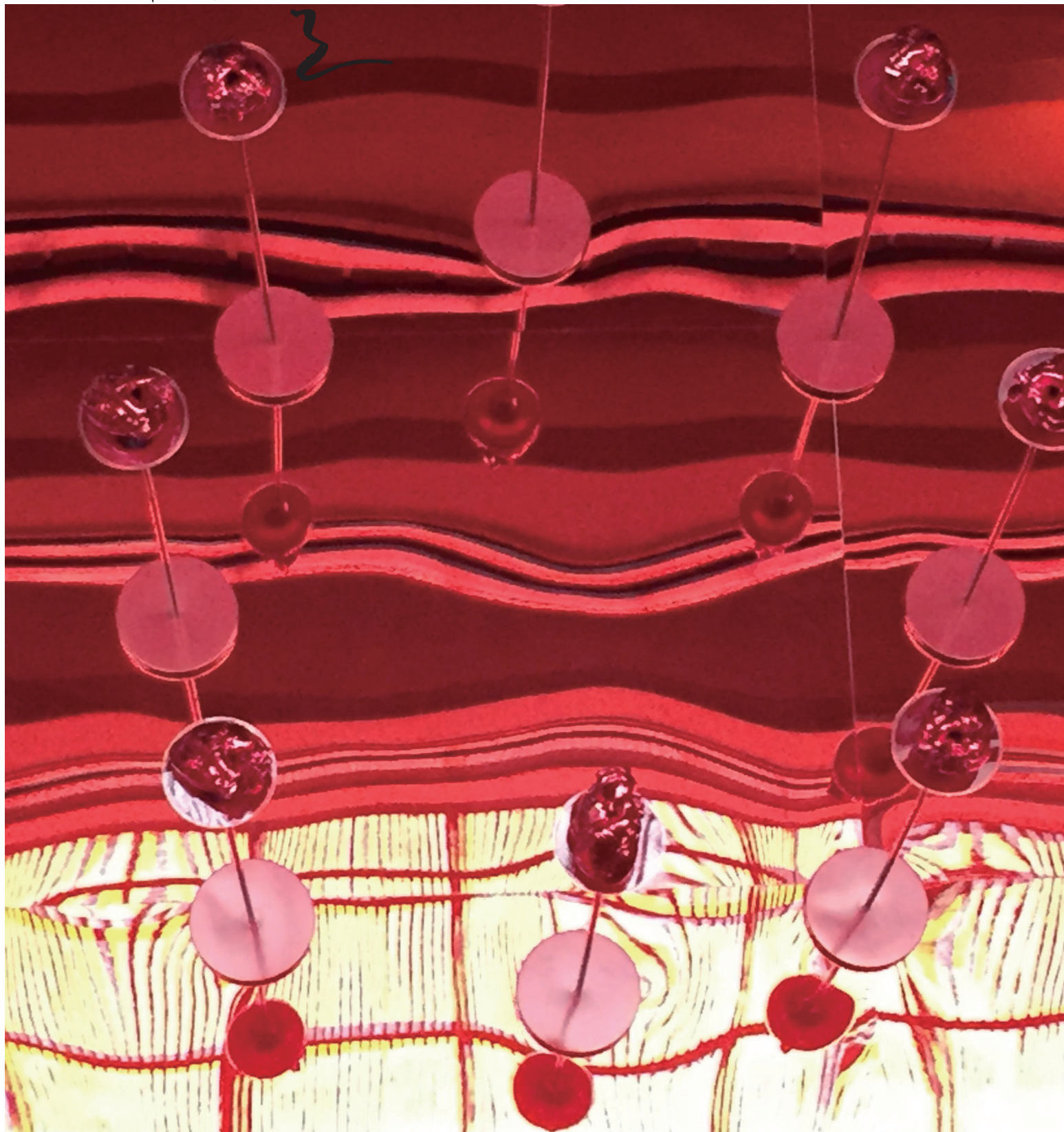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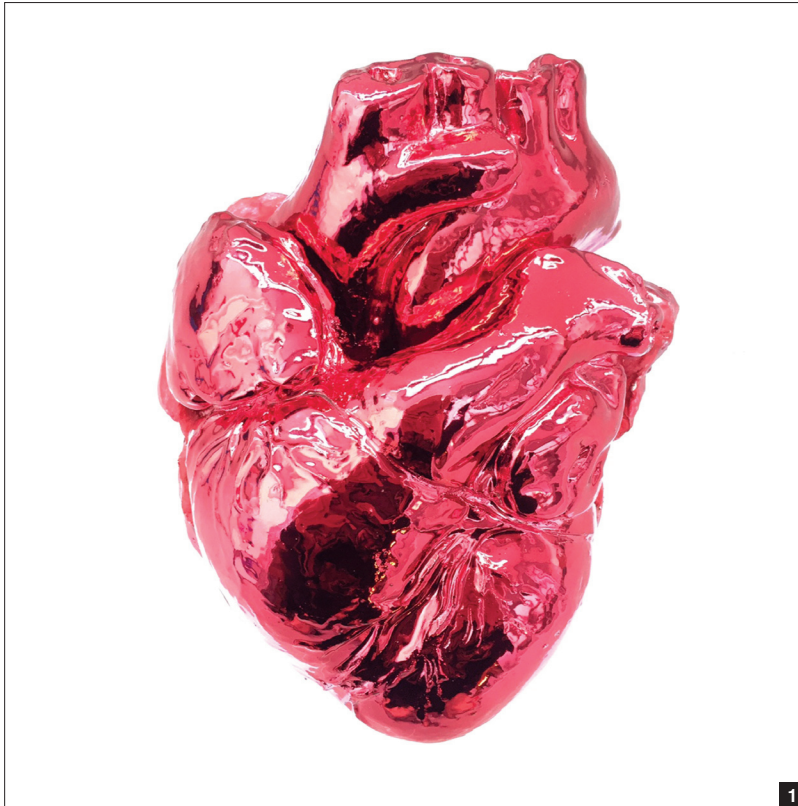
12. 2월 + 0
2월 1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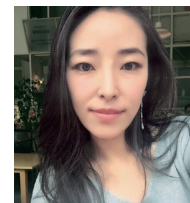
2018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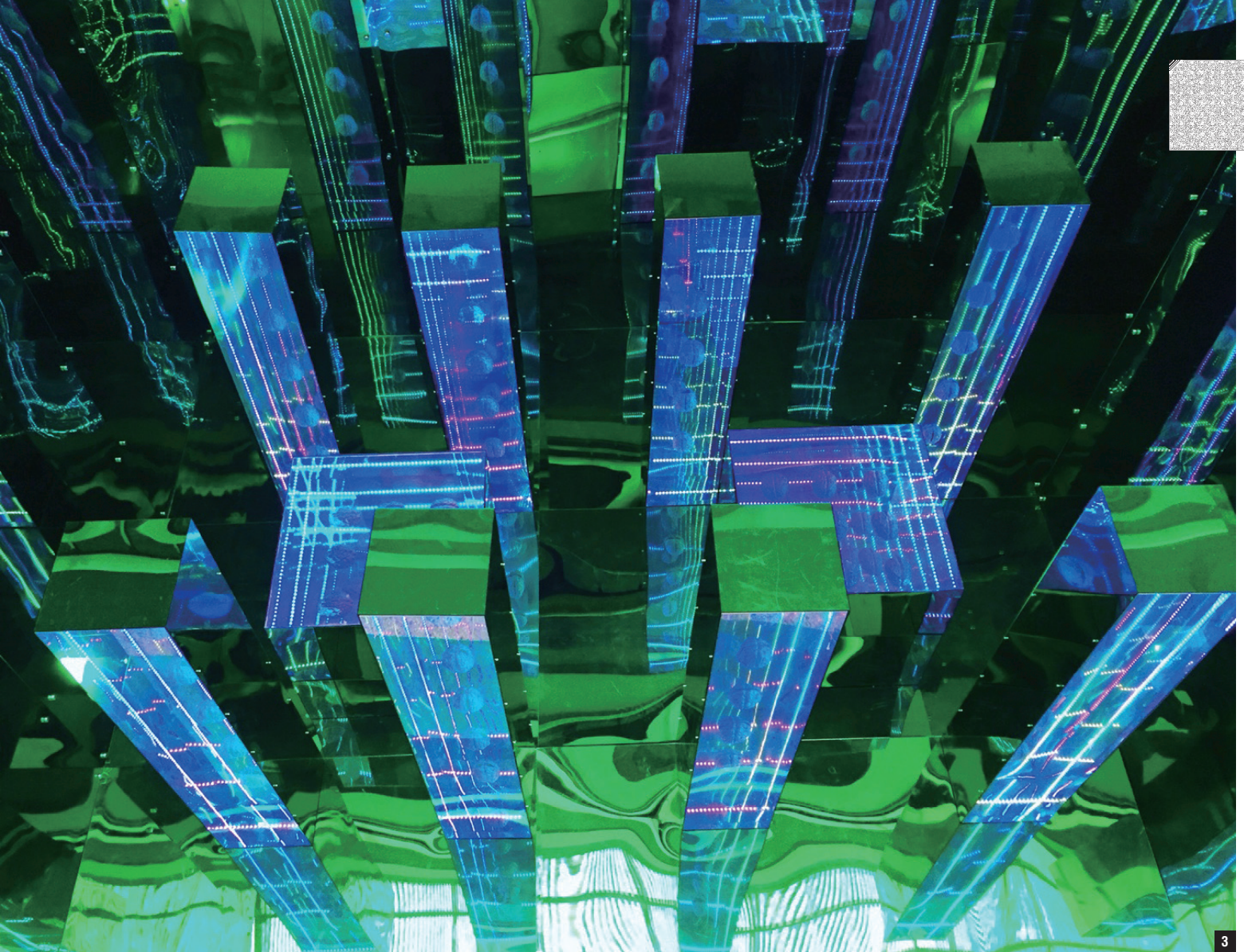
이달의 표지 작가
조은우

2017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 Y-메이커스 선정 작가. OCAD 토론토 대학교와 SVA 뉴욕 대학원에서 시각예술을 전공했으며, IDSVA 에서 미술철학 박사를 수료했다. 'Red Skirt Project'(빨간 치마)라는 테마로 드로잉, 퍼포먼스 영상과 설치작업을 진행했다. 귀국 전후로 뇌파로 연동되는 예술작품을 통하여 주제와 매체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제21회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서울 상상력 발전소에 참여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플랫폼 L에서 전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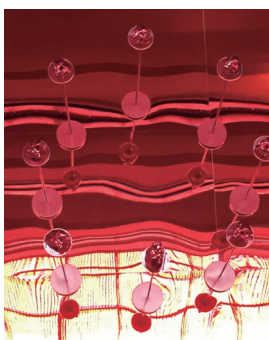


2

- 1, 2 <AI, 뇌파 그리고 완벽한 도시>(AI, Brain Wave & Ideal City) 예술과학융합, 혼합재료 | 420cm×360cm×240cm | 2017
- 3 <AI, 뇌파 그리고 완벽한 도시>(AI, Brain Wave & Ideal City) 예술과학융합, 혼합재료 | 720cm×360cm×240cm | 2017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



3



표지 작품 <뇌파 그리고 폴리포닉>
(Brain Wave & Polyphonic)
혼합재료 | 360cm×360cm×360cm | 2017
서울문화재단(Y-메이커스, 2017 서울 상상력
발전소) 후원

나는 기술의 양면성에 주목한다. 인공지능(이하 AI)의 최초 모델인 인간이 AI를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그 매체의 오리진일 존재인 인간과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풀리지 않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존재와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 세대가 인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하는지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기술의 양면성을 사용해 <뇌파 그리고 폴리포닉>(Brain Wave & Polyphonic)이란 작품을 만들었다. 인간과 AI가 각자의 목적과 경계에 맞추어 공존하는, 공동의 공간과 시간을 표현한 설치작품이다. 이를 위해 AI의 최초 모델인 인간의 뇌, 특히 인간의 생각을 함축하는 뇌파로 여러 화음(폴리포닉, polyphonic)을 담아내는 사람 심장 모양의 스피커를 제작했다. 작품을 통하여 AI는 인간을 위한 중립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인간이 없는 공동의 공간과 시간은 생각과 마음이 비어 있는 뼈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즉, 공동의 공간과 시간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들의 역할과 경계에 맞도록 반영되어야 함을 표현했다.

또한 나는 다양한 예술작업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인간 존재와 과학기술의 상관관계를 변증법적으로 경험하도록 이끈다. 공동의 공간과 시간 속에 여러 개체의 세계가 결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체 속에 여러 생각이 존재하며 개체가 다른 개체의 분열과 파괴 또한 마땅히 허락한다는 것을 다양한 화음으로 들려주고 있다.

CONTENTS

2018.2 — VOL.132



테마 토크 2018년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사용설명서

2월 '테마 토크'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2018년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예술계 '진입' 단계에 있는 예술가, '성장기'의 예술가, 기성예술가 등 예술가의 생애주기에 맞춰 설계된 예술지원사업과 다양한 미적 경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길러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예술교육·예술치유지원사업이 올 한 해 동안 함께할 예술가(단체)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과 사람 년버벌 코미디 팀 웅알스

대사 없는 코미디에 저글링, 마술, 비트박스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결합한 년버벌 코미디 팀 웅알스의 무대는 종합선물세트 같다. 웃음을 만국 공용어로 삼아 세계에 도전한 웅알스의 진가는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 2014년 호주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디렉터스 초이스', 2017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아시안 아츠 어워즈 베스트 코미디 상'을 수상했다. 꿈의 무대로 불리는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무대에도 진출했다. 1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웅알스를 만났다.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조현우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8년 1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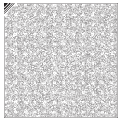
진실 혹은 대담 서울시 축제평가 간담회

서울시에서는 연간 400여 개의 축제가 열린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축제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지역특성 문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와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평가하고 있다. 과연 축제평가는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서울시 축제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들과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제 평창 문화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2월 3일 강릉원주대에서 열리는 문화올림픽 개막 축제와 함께 본격 가동된다. 올림픽 기간 동안 공연과 전시는 물론 설치미술과 축제, 포럼 등 40여 개 분야에서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평창 올림픽 플라자, 강릉 올림픽파크를 비롯한 전국 27개 라이브 사이트(Live Site)를 중심으로 쉴 새 없이 펼쳐진다.



-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조은우

-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일곱 번째

테마 토크 2018년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사용설명서

- 08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위하여
- 10 예술지원사업 안내
- 14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예술치유지원사업
공감 불능의 시대를 함께 극복할
예술 파트너를 찾습니다
- 16 예술교육·예술치유지원사업 안내
- 20 청년예술지원 FAQ
예술교육·예술치유지원 FAQ

사람과 사람

- 22 년버벌 코미디 팀 웅알스
“우리 웃음의 대상은 전 지구인,
목표는 상처 없는 코미디죠”
- 28 안무가·무용수 차진엽
경계 너머 새로운 춤으로
- 32 진실 혹은 대답
서울시 축제평가 간담회
- 38 예술가의 밥그릇
공예작가 이문혁

- 40 서울 찰나
탁명주의 시 <겨울나기> 중에서

공간, 공감

- 52 공간1
개관 5주년 맞은 시민청
- 54 공간2
성동공유센터
- 56 공감1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와 <닥터 지바고>
- 58 공감2
전시 <마리 로랑생전-색채의 황홀>과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 60 공감3
책 <포르투갈의 높은 산>과 <아버지의 유산>
- 62 예술적 상담소

이슈 & 토픽

- 42 쟁점1
천경자, 이우환 위작 논란이 촉발한
‘미술품 유통법’
- 44 쟁점2
소리 소문 없이 출범한 지역문화진흥원
- 46 화제
평창 문화올림픽
- 50 아무나, 아!문화! PD
유망예술지원 선정작가 쇼케이스전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 66 서울 단상
소설가 한창훈의 스무 살 서울
- 68 고재열의 썰(說)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 70 최은규의 음악 정원으로
고악기 연주의 매력
- 72 서울 건축 읽기
성공회성당과 세실극장
- 74 영화의 틈
사진작가 그레고리 크루드슨의 작품과
영화 <고스트 스토리>

2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76 2월 Calendar
-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일곱 번째

절에서 좋지 아니한가

졸업 시즌인데 대학교 안팎이 조용합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학사모를 공중에 던지며 활짝 웃는 졸업생들 사진도 신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도 확 줄었습니다. 졸업 선물로 만년필을 주고받던 풍속은 낡은 앨범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TV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걸려 있습니다. 교수들이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불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 총장님까지 감동 연출에 앞장섰지만 정작 졸업생들은 ‘희망 고문’인 양 무덤덤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왠지 모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걱정 없지. 직장 있고 연금도 받을 테니.”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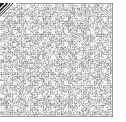
대학 동창 10명이 겨울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5명이 입학했으니 출석률 30%입니다. 사실 오랜만의 만남도 아닙니다. 자녀 결혼식과 부모님 장례식에 소리 없이 나타나는 정다운 친구들입니다. 미세먼지에 바람까지 불던 그날 저녁은 지난번 자녀 결혼식에 외준 친구들에게 혼주가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단톡방(단칸방보다 훨씬 넓은)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입니다. 깨알 같은 건강 정보, 조심해야 할 노인 대상 사기 경계 정보는 그 방 안에 차고 넘칩니다. 누가 퇴장이라도 하면 금세 다시 초대합니다. 소환된 친구는 멧쩍은 듯 슬그머니 제 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근래에 나온 책 제목처럼 ‘표현해야 사랑이다’라고 굳게 믿는 친구들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지 40년 되는 해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포털 어학사전에 ‘순식간’이란 말을 입력하니 ‘눈 한 번 깜빡하거나 숨 한 번 쉴 사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동창 다수가 이 표현에 공감했습니다. 소주 한 잔 들이켜며 누군가 말합니다. “일찍 태어난 게 다행이야. 우리 졸업할 땐 취직이 수월했잖아.”

취직은 쉬웠을지 몰라도 직장생활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내우외환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상한 친구도 더러 있습니다. 아직도 직장에 출근하는 저는 그래서 말을 아깁니다. 혹시라도 조기 퇴직한 친구 마음에 서운함을 남긴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섭니다.

동창생을 만나면 자동으로 그 시절 노래가 순차적으로 떠오릅니다. “우리 오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냐.” 누구 하나가 거기까지 선창하면 그다음부터 들불처럼 화음이 번집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다음 문제



다.” 응원할 때 불렀던 〈친선의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라이벌 응원단도 이 노래는 함께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다음 문제일까요?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이기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정말 상대방을 이긴 걸까’ 하는 의문도 간혹 듭니다. 친구들에게 이 말을 했더니 “그 당시에 우린 이겨야 산다고 배웠잖아”라고 대꾸합니다. 그런데 우린 잘 배운 걸까요? 배운 대로 이겨서 잘산 걸까요? 이겨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갔을까요?

청산이니 보복이니 하는 말들이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스산한 계절입니다. 살벌한 말들이 판치는 와중에 테니스 스타 정현과 조코비치의 인터뷰가 가슴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조코비치는 테니스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선수인데 9살 아래인 정현에게 패한 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현은 마치 벽(Wall) 같았다. 랭킹 톱 10에 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패기의 정현 역시 유쾌한 답장을 날렸습니다. “3 세트를 내줘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코비치보다 젊어서 2시간 더 경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젊음은 대단한 거지만 훌륭한 건 아닙니다. 단지 2시간 더 경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능력이 어떻게 출신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젊어서’라는 자신감, 듣기에 좋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2시간을 이미 써버린 저희 같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재기발랄한 젊은이에게 교훈의 말을 구질구질 늘어놓기보다 그의 잠재력을 즐겁게 예언해주는 것. “나도 옛날엔 너보다 더 힘이 셸어.” 청춘을 질투하는 이런 말로 독거를 재촉하지 말고 “젊으니 뭐들 못해”라고 한마디 던진 후 뒤로 빠져주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정환





2018년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사용설명서

문화를 뜻하는 '컬처'(culture)의 어원이 재배, 경작을 뜻하는 'cultivate'이기 때문인지 문화는 흔히 농사에 비유된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농사의 과정은 문화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다. 흉수나 가뭄처럼 뜻하지 않은 시련을 이겨내고, 작고 여린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지원사업'이다.

2월 '테마 토크'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2018년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예술계 '진입' 단계에 있는 예술가, '성장기'의 예술가, 기성예술가 등 예술가의 생애주기에 맞춰 설계된 예술지원사업과 다양한 미적 경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길러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예술교육·예술치유지원사업이 올 한 해 동안 함께할 예술가(단체)를 기다리고 있다.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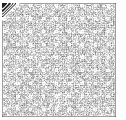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은 총 2회에 걸쳐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남산예술센터에서 진행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차 공모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접수 마감 후 심사를 진행 중이다. 2차 공모는 지난해 재단에서 처음 진행해 청년예술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청년예술지원사업들을 준비할 예정이다.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사업명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기타
예술작품지원	●	●	●	●	●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	●	●				
예술가 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					●		
	문학창작집 발간						●	
	첫 책 발간						●	
	예술연구서적 발간		●	●	●	●	●	●
유망예술지원	●	●	●	●	●	●		
민간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운영지원	●	●	●	●	●	●	●	●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	●	●	●	●	●	●	
청년예술 지원	최초예술지원		●	●	●	●	●	
	서울청년예술단		●	●	●	●	●	
	청년예술공간지원		●	●	●	●	●	●



1, 2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사업설명회 현장.



예술가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지원

예술가의 생애주기에 맞춰 설계된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예술계 '진입' 단계에 있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예술지원사업이다. 청년예술지원사업은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한다. 39세 이하의 예술인이나 데뷔(설립) 10년 이하의 예술인(단체)이 대상이다.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 없이 청년예술인의 작품 발표를 지원하는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인들의 작품 발표 및 상호교류·협업공간을 지원하는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성장기'에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유망예술지원'이다. 예술계 진입 후 성장 중인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는 신진예술가들에게 입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선정된 예술가들이 올해 2차년도 지원을 받으므로 신규 공모는 진행하지 않는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창작지원금과 공간, 장비 등을 비롯해 멘토링과 크리틱, 네트워킹, 교육정보 서비스 등을 지원받는다. 해당 장르별 브랜드가 있는 사업으로, 연극 장르는 서울연극센터의 '뉴스테이지(NEWStage)', 무용 장르는 서울무용센터의 '닷(dot)', 음악, 전통, 다원예술은 문래예술공장의 '맵(MAP)', 시각 장르는 서교예술실험센터의 '99℃'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성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들이다. 올해 서울에서 제작·발표되는 예술작품을 지원하는 '예술작품지원',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문학, 예술연구서적 등 우수한 창작품의 발간을 지원하는 '예술가지원'으로 구성된다.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작업실, 연습실 등 민간창작공간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민간창작공간지원'은 예술작업의 결과물이 아닌 예술 활동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및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신설되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장르별 창작공간과의 협업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장르별 창작공간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장르별 혹은 지역별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창작공간의 역량을 심분 발휘해, 현장 예술가들에게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는 예술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가, 예술단체들이 보다 안정된 예술 생태계 안에서 예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작지원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글 이정연_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안내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1, 2회차로 구분 짓고, 문학 첫 책 및 문학창작집 발간지원은 예술가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다. 지원 장르와 방식이 다양해 다소 복잡해 보이는 예술지원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했다. 1차 공모는 접수가 마감됐으며 2차 공모 청년예술지원이 남았다.



예술작품지원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신청자격	2018년 서울에서 공연예술 활동 발표를 계획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2018년 서울에서 다원예술 발표를 계획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인전 과거 1회 이상 개인전을 수행한 작가 기획전/단체전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혹은 기획단체), 과거 2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는 시각예술단체
지원대상사업	2018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사업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인형극, 아동극, 뮤지컬, 기타 무용 한국무용(창작), 현대무용, 발레, 기타 음악 기악, 성악, 작곡 발표, 기타 전통예술 국악기악(계승/창작), 국악성악(계승/창작), 연희(계승/창작), 전통무용(계승), 작곡 발표	2018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다원예술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표현 활동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실험적 성향의 예술 여러 장르의 특성이 융합된 복합장르 예술 기타 예술의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추구하는 예술 활동	개인전 작가가 2018년 서울 소재 공간에서 발표하는 개인전 기획전/단체전 기획자 또는 시각예술단체가 2018년 서울 소재 공간에서 발표하는 기획전/단체전 지원 장르 평면/입체(동양화, 서양화, 판화 등), 미디어(사진, 영상 등), 도예, 금속, 섬유 등
지원규모	최저 5백만 원~최고 5천만 원	최저 5백만 원~최고 3천만 원	개인전 최저 5백만 원~최고 1천만 원 기획전/단체전 최저 5백만 원~최고 3천만 원
접수기간	1월 2일(화)~16일(화) ※ 접수마감		
문의처	총괄 창작지원팀 02-3290-7093 연극 서울연극센터 02-743-9331 무용 서울무용센터 02-304-0233 음악, 전통예술 문래예술공장 02-2676-0093	문래예술공장 02-2676-4333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8



1



2

- 2017 예술작품지원 선정 프로젝트 <I was admiring her though a series of precision cut mirrors Look Look>, LDP 무용단.
- 2017 예술작품지원 선정작 <손님들>, 프로젝트 내친김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신청자격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며 설립연한 3년 이상의 공연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우대 지원조건 공연장-공연장 상주단체(공연예술단체) 간 매칭 및 협약체결
지원대상사업	수행 프로그램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프로그램 I' 중 1건 이상, '프로그램 II' 중 1건 이상 프로그램 I 공연(단체 초연작) 1건 이상, 공연(재공연작) 2건 이상 프로그램 II 공공 프로그램, 상주단체 간 교류·협력, 조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규모	공연예술단체당 연간 최소 8천만 원~최고 1억 5천만 원 -공연장당 최대 3개 공연예술단체까지 매칭 가능
접수기간	1월 2일(화)~22일(월) ※ 접수마감
문의처	총괄 창작지원팀 02-3290-7096 연극 서울연극센터 02-743-9335 무용 서울무용센터 02-304-0234 음악, 전통예술 문래예술공장 02-2676-4332



2017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선정 프로젝트
공연(신작) <은평이야기>, 은평문화예술회관-정가약회.

예술가지원

	문학(첫 책 발간지원· 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신청자격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문학 작가 첫 책 발간지원 등단~첫 책 발간 전 창작집 발간지원 등단 후 개인 창작집이 있는 작가, 개인 창작집이 있는 미등단 작가 등단 15년 이하(등단연도 2003년 이후) 등단 16년 이상(등단연도 2002년 이전)	첫 개인전 이후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작가 2003년 이전 첫 개인전 개최 필수 지원 신청 주체는 작품집의 작가 당사자여야 함	서울에 거주하며, 지원 대상 장르에 대한 연구, 활동을 정리하여 서적으로 발간하려는 개인 2인의 공동 연구·집필 신청 가능 3인 이상의 공동 연구, 출판사 명의로의 신청은 불가
지원대상사업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작집 발간이 가능한 사업 창작집 발간은 출간물 형태로 한정, 미발간 원고로 구성된 개인 창작집만 인정 지원 장르 시, 시조, 소설, 평론, 희곡, 동시, 동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작품집 발간이 가능한 사업 작가 본인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수록한 작품집 발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서적 발간이 가능한 사업 발간물 기준으로 최소 200쪽 이상의 분량 지원 장르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경영
지원규모	1천만 원 정액지원 (상금 방식으로 지급)		
접수기간	1월 2일(화)~17일(수) ※ 접수마감	1월 2일(화)~15일(월) ※ 접수마감	1월 2일(화)~15일(월) ※ 접수마감
문의처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03, 4622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8, 0246	창작지원팀 02-3290-7096, 7184





1



2



3

1, 2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한 축제.

3 2017년 장애인예술창작활성화지원
음악부문 선정 프로그램인 <NOW I SEE>,
코리아아트빌리티체임버.

민간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운영지원

지원대상	창작 활동을 목적으로 공간을 임차(월세 형태 보유)해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으로 운영 및 사용하는 민간 예술단체 또는 2인 이상의 예술인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서울시 소재 공간을 월세 형태로 임차해 창작작업 및 연습을 목적으로 2인 이상 예술인이 사용 및 운영 사업기간 동안 잔여 임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운영 및 사용 가능한 창작공간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이 일치해야 하며 신청인은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및 사용하는 예술인
지원규모	1개 소당 6개월의 임차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부가세, 관리비 제외한 순 임차료)
접수기간	1월 2일(화)~15일(월) ※ 접수마감
문의처	창작지원팀 02-3290-7093

예술축제지원

신청자격	2018년 2월~2019년 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문 예술축제를 주최 및 주관하는 축제조직위원회 및 예술단체 대표예술축제 3년 연속 지원사업 201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 대표예술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동일 축제가 2018년 2월~2019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운영단체/조직위원회단체/조직위원회 신규 공모 없음, 2016년에 기 선정된 대표예술축제는 반드시 2018년 대표 예술축제 공모에 지원 신청(기한 내 신청서류 미접수 시 연속지원 불가) 우수예술축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지원하는 축제가 최근 3년간 최소 1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5개(명) 이상의 전문예술가 또는 단체가 축제에 참여하고, 2018년 2월~2019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운영단체/조직위원회
지원대상사업	장르 문학, 시각, 음악, 무용, 연극, 전통, 건축, 다원 등 장르 전문 예술축제 ※ 해당 장르 전문 예술인들이 주최/주관하여 개최
지원규모	대표예술축제 7건, 3년 연속 지원, 지원금 최대 3억 원 / 우수예술축제 20건 내, 단년 지원, 지원금 최대 5천만 원
접수기간	1월 2일(화)~19일(금) ※ 접수마감
문의처	축제팀 02-3290-7166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신청자격	2018년 서울에서 예술 활동 발표를 계획한 장애예술인(단체)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단체)은 지원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지원대상사업	2018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사업 문학 창작집 발간 시각 전시 등의 창작물 발표 연극, 무용, 음악 공연 등의 창작물 발표 다원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다원예술 창작 및 표현 활동 전통 연희, 국악기악, 국악성악, 전통무용 등의 창작물 발표
지원규모	최저 5백만 원~최고 1천5백만 원
접수기간	1월 2일(화)~22일(월) ※ 접수마감
문의처	잠실창작스튜디오 02-423-6674, 6680



청년예술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신청자격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창작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39세 이하(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2009년 1월 1일 이후 데뷔) 이하의 예술인	서울에서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39세 이하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이거나 설립 10년 이하의 문화예술단체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장르의 청년예술인(단체)들이 창작발표 및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최소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공간
지원대상사업	장르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수행기간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장르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수행기간 선정일로부터 12월 이내 완료	지원항목 임차료, 공간운영경비, 사업운영비 수행기간 3~12월
지원규모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 창작준비형 워크숍, 자료조사 등 창작을 위한 사전준비 비용 2백만 원(시상금) • 창작발표형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물 발표 비용 5백~1천5백만 원 (지원금) 문학 작품창작 활동비 1백만 원 (시상금)	활동비 단체 구성원의 안정적인 창작지원금. 월 70만 원(1인) 사업비 대관료, 제작비 등 단체의 창작 활동 실현을 위한 비용 연 1천5백만 원(단체) ※ 단체당 최대 5천만 원 내외	최대 5천만 원 이내(1개 소)
공모시기	상·하반기 연 2회	상반기 연 1회	상반기 연 1회
접수기간	2월 중 별도 공지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문의처	연극 서울연극센터 02-743-9328, 9337 무용 서울무용센터 02-304-0093, 9100 음악, 다원, 전통 문래예술공장 02-2676-4309, 0052, 0093(전통) 시각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7, 1551 문학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22 총괄 창작지원팀 02-3290-7075	연극 서울연극센터 02-743-9328, 9337 무용 서울무용센터 02-304-0093, 9100 음악, 다원, 전통 문래예술공장 02-2676-4309, 0052, 0093(전통) 시각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7, 1551 문학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22 총괄 창작지원팀 02-3290-7075	창작지원팀 02-3290-7165



1 2017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2 2017년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공예 분야 선정 작가들의 전시 <향유공예>.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예술치유지원사업

공감 불능의 시대를 함께 극복할 예술 파트너를 찾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적 경험을 통해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예술교육, 그리고 소통과 공감에 필요한 이들을 위한 예술치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자기만의 예술언어로 공감 불능의 시대를 헤쳐 나갈 예술가들을 기다린다.

지난해 9월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다. 많이들 기억하겠지만 부산에서 여중생 몇 명이 한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다. 못한 어른들의 폭력도 모자라 또래 사이에서도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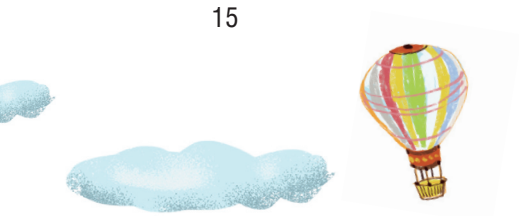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의 주인공 윤재는 '아몬드'를 닮은 뇌 속의 편도체가 작아서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엄마는 뇌에 좋다는 아몬드를 먹이며 감정을 가르치지만, 윤재는 책을 읽어도 행간을 읽을 수 없고 말은 하지만 '소통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불의의 사고로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고, 홀로 남겨진 윤재에게 새로운 친구 두 명이 다가온다. 윤재는 상처투성이 소년 '곤이'에게서 분노와 두려움을 상상하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소녀 '도라'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소통과 공감의 노력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아몬드'를 찾아간다.

이 소설에서 우리는 공감 불능의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 자신을 마주한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각자의 '아몬드'를 키우는 것이 예술교육의 역할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곤이'와 '도라'의 상처를 궁금해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예술치유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서울형 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0여 년간 미적 경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예술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즐기도록 돕는 통합예술교육의 방법론으로 서울형 예술교육을 선도해왔다. 다름의 이해를 통해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한편 스스로의 삶과 소통하는 방법을 깨닫





도록 도왔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2017년, 청소년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문예술교육을 제시했다. 서울만의 독자적 학교예술교육사업인 '서울형 예술가교사(TA)'는 전문 예술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초·중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청소년TA의 경우 3인 팀 단위로 지원 신청을 받으며, 어린이TA는 방과 후 '예술로 돌봄' 사업을 정규교과와 연계한 '예술로 플러스' 사업으로 전환·통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TA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아카데미와 연구과정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서울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향유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민예술대학'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기형, 연속형, 그리고 심화 과정의 단계별 체계를 갖추고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말을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를 취지로 하며, 새로운 콘텐츠 연구개발 및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캠프형 프로그램을 서울만의 차별화된 지원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형 프로그램 발굴 지원사업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자치구 문화기반 시설과 협력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간별 예술교육·예술치유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의 세 공간에서는 각각의 정체성으로 예술교육·예술치유사업을 운영한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6~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술로 놀이터'를 운영하며, '예술로 상상극장' 사업을 통해 기존 예술지원 트랙에서 소외된 어린이 공연작품 개발의 기회를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상공간에서 어린이들과 만나는 기회를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서울시가 조성하는



‘예술로 플러스’.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1호로, 국내 최초의 상주형 예술가교사 플랫폼 ‘예술놀이 랩(LAB)’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창작공간에 이어 레지던시 개념의 새로운 예술교육공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상주 예술가교사 LAB에서 연구개발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울 서남권 학교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예술치유허브는 프로젝트 입주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들과 함께 예술적 경험을 통해 일상의 회복을 지향하는 일반 성인 대상의 ‘예술보건소’를 운영하는 한편, 콜센터 상담원, 청소년 미혼모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회적 위기계층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예술마음치유’를 운영한다. 소통과 공감에 필요한 이 시대에 사회적 예술치유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의 본성을 정의하는 것은 욕망, 경쟁, 이기심이 아니라 이해, 공감, 협력과 이타성이라고 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면, 예술가들은 예술 안에 존재하는 생명이나 사랑 같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자기만의 예술언어로 이미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예술의 교육·치유 작업에 관심 있는 많은 예술가들과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

글 서명규_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예술치유지원사업 안내

서울문화재단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예술교육사업, 개인의 정서적 치유 및 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예술치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삶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예술가들은 서울문화재단과 뜻을 함께하시길.

예술가교사(TA)

사업개요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함께>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중학교 정규과정 연계 인문예술교육
	어린이 통합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 초등학교 정규교과 연계 통합예술교육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기간 2018년 3~12월
	사업내용 '서울형 예술가교사(TA)' 선발 및 파견, 역량 강화를 통한 예술교육 전문인력 육성 초·중등학교 내 서울형 학교예술교육 지원
접수기간	지원내용 및 규모 서울형 예술가교사(TA) 총 230명 선발 예술가교사(TA) 대상 창의예술교육 아카데미 과정 운영 월정액 체계로 활동비 운영(청소년TA 약 7개월, 어린이TA 약 8개월) 학교 방학기간에 따른 무급휴가, 2대 보험(고용, 산재) 가입
	접수기간 1월 15일(월)~19일(금) ※ 접수마감
문의처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어린이TA 02-758-2017, 2023 청소년TA 02-758-2018, 2041, 2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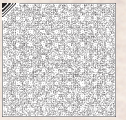
서울시민예술대학

신청자격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전문예술단체 서울 소재 대학(산학 협력단 등) 및 민간 문화예술기관(미술관, 대안공간 등)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 ※ 대학생 및 동호회 등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단체 및 학원이나 교습소, 종교단체는 지원 불가
	일반 과정 개인의 창작 및 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단기형 1천만 원~1천5백만 원 - 연숙형 1천5백만 원~2천5백만 원
지원내용 및 규모	심화 과정 예술에 대한 심미적 가치를 배우고,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2년간의 단계별 심화 과정으로 진행 1천5백만 원~2천5백만 원 ※ 매년 심사를 통해 연숙지원 여부 결정
	접수기간 1월 30일(화)~2월 6일(화)
접수방법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문화재단 서울창의예술학교(artsedu.sfac.or.kr)를 통한 신청 ※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의 온라인 단체회원 가입 필수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2-758-2013



1 서울형 학교예술교육 예술가교사(TA).

2 서울시민예술대학.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및 법인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지원내용 및 규모	일반 공모 1년 지원, 1천5백만 원~2천만 원 미만 기획 공모 최대 3년 연속 지원, 2천만 원~2천5백만 원 ①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금 - 공통 강사비, 기타 인건비, 교육운영비, 회의비,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모임 지원 - 일반 공모 기획자 인건비(교육 회차당 7만 원, 3시간 기준) - 기획 공모 전문인력 인건비(월 1백만 원 이내 책정) ② 프로그램 설계 운영을 위한 운영단체(기관) 컨설팅 및 역량 강화(네트워킹) 워크숍 지원
접수기간	1월 30일(화)~2월 6일(화)
접수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2-758-203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일반공모	기획공모	
	(A형)일반지원형	(B형)콘텐츠개발형	(C형)토요캠프형
신청자격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이 있는 전문 및 신진단체(기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특성(여가문화 조성)을 반영한 서울 지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연구 계획을 제안 본 사업 내 소외된 장르(문학, 미디어아트) 또는 대상(가족, 탈학교 청소년, 장애인 등)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계획 제안이 가능한 예술가, 예술(교육)단체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의 가치를 경험하고 확장시키는 관계 형성 캠프 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
지원내용 및 규모	여타 주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장르의 다양성 촉진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 지원 1천8백만 원~2천 4백만 원	상반기 콘텐츠 개발 후 하반기 시범 프로그램 운영 1천8백만 원~2천만 원	또래 및 가족(50명 내외)이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캠프 운영 지원 재단 내 문화공간 또는 안전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기획 3천만 원 내외
접수기간	1월 30일(화)~2월 6일(화)		
접수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2-758-2044, 204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어린이 예술체험 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술로 놀이터>	어린이 참여형 공연 개발 지원 프로그램 <예술로 상상극장>
신청자격	문화예술(교육)단체 (단체 등록증이 없는) 문화예술 임의단체/ 프로젝트그룹 예술가/예술가교사 개인	어린이극을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배우 또는 배우로 구성된 팀(1~3인극) 공연 무대에서 배우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어린이극 제작을 위한 기획안 제출 가능한 자
지원내용 및 규모	예술가 창작 활동 기반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되는 예술체험 프로젝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기운영했던 프로젝트 중 내용, 형식 면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 및 보완한 프로젝트도 가능 지원금 지원(1개 프로젝트당 7백만 원 이내) 예술교육 역량 강화 전문 컨설팅 지원 참여자 모집 등 홍보 지원	작품개발·제작 워크숍 소정의 작품개발 및 출연료 지급 공연소품 구입비 지원 우수 공연 선정 시 어린이시설 순회공연 기회 제공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추진 일정은 확정 후 추후 공지(4월 예정)
접수기간	1월 24일(수)~2월 1일(목)	4월 예정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홈페이지 접속 ▶ 창작지원 ▶ 참여신청 ▶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 참여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문의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2-871-7414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2-871-7419





- 1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상상극장>.
- 2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 랩(LAB)>.
- 3 서울예술치유허브 <예술보건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 랩(LAB) 상주형 예술가교사(TA)

신청자격	예술놀이/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예술가(개인)
지원내용 및 규모	예술가교사(TA)의 예술교육 연구-창작-실행 환경 제공 연구 및 교육 활동 공간 사용 기획·연구개발비 및 교육실행비 지급(월 250만 원 상당 활동비) 보조강사 인건비(1인/1회) 지급 및 월 30만 원 상당 교보재 지원 예술교육 기획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예술교육 전문가 컨설팅, TA 역량 강화 워크숍, 학습연구모임 지원
접수기간	1월 15일(월)~25일(목) ※ 접수마감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02-2697-0023

서울예술치유허브: 프로젝트 입주

신청자격	일반 예술, 예술치료, 예술인문상담 단체 ※ 지원금 지급 및 집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개인 지원 불가) ※ 예술치료사의 경우 관련 분야 석사학위 및 동등 자격 보유자
지원대상 사업	일반 성인 대상 <예술보건소> 사회적 위기계층에 속한 특수직군/특정집단 대상 <예술마음치유> ※ 프로젝트별 1개 이상 프로그램 제안으로 단체별 총 2개 이상의 프로그램 필수 제안
지원내용 및 규모	프로젝트 실행금 지원(팀당 프로젝트 2건, 총 1천만 원 내외) 개별 스튜디오 제공(입주기간 3~12월) 센터 공용 공간 및 시설, 장비 무료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 상호 티칭 워크숍 제공 서울예술치유허브 연계 대내외 프로그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전년 대비 결과자료집 제작(1백만 원 상당 예산) 의무, 공간 사용료(연간 1백만 원 이상) 납부 및 공간 사용일수 의무 관련 폐지
접수기간	1월 22일(월)~31일(수) ※ 접수마감
문의처	서울예술치유허브 02-943-9300, 9362

청년예술지원 FAQ

Q 재단의 청년예술지원 연령 기준은 왜 39세인가요?

현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청년 관련 주요 정책에서 제시한 연령 기준에서 가장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여 '39세(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로만 청년을 제한하지 않고 '데뷔 10년(2009년 1월 1일 이후 데뷔) 이하'의 단기 예술경력을 보유한 대상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최초예술지원에 참여하기 원하는 개인(예술가)들이 모여 공동창작(프로젝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최초예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팀의 경우, '대표자'격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최초예술지원을 신청할 때, 공공지원금 수혜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은 '공고일 이전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자'로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본인의 공공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는 선정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등 재단이 정한 일부 사업은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과 무관합니다.



Q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을 이미 신청했습니다. 2018년 최초예술지원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공고일 이전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동일 지원신청인은 서울문화재단의 각종 예술지원 사업에 다중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은 최대 3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중요] 지원신청인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는 다중 신청이 불가하며, 단일사업 내에서도 다중 신청은 제한됩니다. (예: '최초예술지원-시각'에 신청할 경우 '최초예술지원-다원'에 신청 불가 / '최초예술지원-창작준비형'에 신청할 경우 '최초예술지원-창작발표형'에 신청 불가)

Q 최초예술지원과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두 사업에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2개 사업 중 하나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두 사업은 <서울예술인플랜> 정책에 따른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이 같은 사업이기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올 한 해 활동 계획에 보다 근접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한 분야만 신청하기 바랍니다.





Q 2017년 최초예술지원으로 지원을 받았습니.

2018년 최초예술지원에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초예술지원에 한하여 최대 3회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단, 2017년 사업에 대한 정산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Q 최초예술지원에 선정된 후 같은 해 타 지원사업의 공공지원금을 받아도 될까요?

네. 단, 최초예술지원에 선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 지원기관도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이 유사한 일부 사업에 대해 동일한 사업내용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니 각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기관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Q 최초예술지원의 창작준비형과 창작발표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창작준비형’은 공연 또는 전시 등 발표의 이전 단계인 각종 연구·분석, 자료조사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세미나, 워크숍, 낭독공연’ 등 창작을 위한 사전 준비 전반과 관련한 예술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창작발표형’은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물 발표에 대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창작발표형’에 선정되면, 반드시 1개 작품 이상 공연·전시해야 합니다. 단, 횟수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술교육·예술치유지원 FAQ



Q 사업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예술가교사(TA) 및 예술교육·예술치유 사업 간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단, 활동내용 및 일정 중복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단 내외 예술창작 및 축제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3. 2018 예술가교사(TA)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재단 2018 생활문화매개자(FA)와 중복 활동은 불가합니다.
4. 2018 예술가교사(TA)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학교예술강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와 중복 활동 가능합니다. 단, 예술가교사(TA)는 학교 교과시간과 연계하여 팀티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적 사유를 고려한 일정 조율 및 변경이 어렵습니다. 활동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 후이라도 재단 내 타 지원사업과 활동 일정 등이 중복되어 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동일 프로그램으로 중복 지원 시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 동일 사업으로 당해 연도의 국고, 서울시 및 타 지자체 지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거나 종교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Q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은 무엇인가요?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집기구입, 공과금 등)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등)
- 뚜렷한 목적이 없는 회의비, 간담회비, 다과비, 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 등의 비용(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상금, 상금 심사비 등)
- 시혜성 경비(강사 선물, 기념품 등) 및 현금권, 사행성 경비(주점, 도박장 등)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 확인 바랍니다.





넌버벌 코미디 팀 웅알스

“우리 웃음의 대상은
전 지구인,
목표는 상처 없는
코미디쇼”

“저희는 퍼포디언(Perfordian, 퍼포먼스를 하는 코미디언)입니다.” 넌버벌 코미디 팀 웅알스(Ongals)의 자기소개는 이들의 정체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대사 없는 코미디에 저글링, 마술, 비트박스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결합한 무대는 종합선물세트 같다. 웃음을 만국 공용어로 삼아 세계에 도전한 웅알스의 진가는 해외에서 먼저 알려졌다. 2014년 호주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디렉터스 초이스’, 2017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아시아 아츠 어워드 베스트 코미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7년 12월에는 꿈의 무대로 불리는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 진출했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웅알스 멤버들을 만났다.

공연에 서는 배우는 네 명이지만 웅알스 멤버는 총 일곱 명이다. 초기 멤버인 조수원, 조준우, 채경선 외에 최기섭, 하박, 이경섭, 최진영이 합류해 더블 캐스팅 체제로 운영된다. 최기섭은 '옥동자' 정종철에게 비트박스를 배웠다고 한다. 2010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려던 정종철이 아내의 임신으로 불참하자, 최기섭이 합류하며 고정 멤버가 됐다. 뮤지컬계에서 비트박스로 일하던 최진영은 2013년부터 최기섭과 더블 캐스팅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보잉과 댄스에 강한 하박은 최기섭의 소개로 2012년에 합류해 조수원과 더블 캐스팅으로 활동 중이다. 마술사였던 이경섭은 2013년 합류해, 저글링을 장기로 구사하는 조준우와 같은 배역을 맡았다.

웅알스 공연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조 준 우 2008년 1월 '웅알스'라는 이름으로 첫 공연을 했으니까 공연으로는 10주년인데, 팀 결성으로 따지면 11주년이지요. 2007년 KBS <개그콘서트> '웅알스' 코너로 방송에 데뷔해서 7개월간 활동했으니까요.

채 경 선 사실 웅알스의 원형은 2006년 조수원 선배와 제가 장난으로 시작했던 슬랩스틱 개그였어요. 나중에 준우 형이 합류하면서 멤버가 세 명이 됐고, 그 개그를 1년간 대학로 무대에서 선보이다 2007년 <개그콘서트>로 첫 방송을 탔죠.

보통 코너가 끝나면 새 코너로 방송에 나오지 않나요? 방송사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한 이유가 있나요?

조 준 우 '웅알스' 후속 코너가 있긴 했어요. MBC <개그야>에 나왔던 '외박퀴 패밀리'라고, 초기 멤버 세 명에 신인 개그맨 두 명, 개그우먼 한 명이 외박자전거를 타고 코미디를 하는 코너였어요. 6개월간 준비했지만 6주 만에 내려갔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기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주 새 이야기로 업데이트하는 우리나라의 방송 시스템과 맞지 않았죠. 하지만 TV 시청자가 대상이 아니라 매번 관객이 바뀌는 공연 무대라면,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연륜이 쌓이면서 깊이와 재미를 같이 추구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국내에서 해외로 무대를 넓힌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조 준 우 2008년 여름 <개그콘서트> 멤버들과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모두 몸이 불편한 중증 환아여서 의자에 앉지 못



하고 바닥에 누워 관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개그맨들은 아무도 못 웃기고 내려왔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언어 장벽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공연에는 반응이 뜨거운 걸 보고 언어를 넘어서 웃음 코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앞에서도 공연이 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방송국을 떠나 개별 팀으로 공연을 준비하려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채 경 선 2010년 말까지 연습실도 없었어요. 대학로 소극장 같같이 홀에 나갈 때였는데 낮 공연이 없을 때는 거기서 연습하고, 마로니에공원에서 회의하고 그랬죠. 그러다 구한 게 지금 사당동 연습실이에요. 지하철역과 가깝고, 천장이 높아 저글링하기도 좋고, 월세도 35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수도시설도 없는 허름한 지하창고였지만 페인트칠도 직접 하고 거울도 붙이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전기시설이 낡아서 에어컨을 못 써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밖으로 피신해요.

조 준 우 2010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할 때도 힘들었어요. 항공료 말고도 체류비 등이 만만찮았죠. 40일 정도 체류해야 하는데 제일 싼 민박에 묵어도 1인당 7만 원이었거든요. 2011년 같은 페스티벌에 다시 참여했을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갔어요. 다행히 거기서 그해 9월 열리는 영국 템즈 페스티벌에 초청받으면서 해외 공연의 물꼬가 트였죠.



- 1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주최로 201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K13 Feel Korea> 공연. 토이 박스에서 꺼낸 마이크를 바탕으로 착각한 아이의 모습으로부터 비트박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2 2017년 12월, 마침내 런던 웨스트엔드 무대에 입성한 웅알스 멤버들.
- 3 관객 중 한 명을 즉석에서 불러내 함께한 핸드벨 연주. 당황하면서도 열심히 참여한 관객의 표정이 또 다른 웃음 포인트다. 2017년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의 소호 시어터 공연.



공연 의상도 초기와 최근이 다른데요, 조금씩 개선을 거듭한 건가요?
 채 경 선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아동용 캐릭터 팬티랑 스타킹에 알록달록한 티셔츠를 사다 입었어요. 그러다 내복으로 의상을 바꿨는데, 성인용 내복은 귀여운 게 없잖아요. 아동용 내복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를 두 벌씩 사고, 그걸 어머니가 재봉틀로 이어 붙여주셨죠. 나중엔 의상디자이너에게 의뢰해 맘에 강한 소재로 지금의 의상을 만들었어요. 자세히 보면 턱받이에 한글도 적혀 있어요. 해외 공연이 많으니까 한글을 알리고 싶어서요.

‘퍼포디언’(Perfordian)이라는 단어도 직접 만들었다면서요?

조 준 우 ‘퍼포먼스’와 ‘코미디언’을 조합해서 만든 단어예요. 외국에서는 ‘웅알스’라면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해외에서도 우리를 알릴 새로운 단어가 있어야겠다 싶었던 거죠.

태극 문양 바탕에 ‘Perfordian’이라고 적은 심벌마크도 한국을 알리기 위한 시도였다고요.

채 경 선 조수원 선배의 지인 중에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라피티와 로고를 디자인하는 분이 있었어요. 담배 한 보루 사들고 가서 심벌마크를 디자인해달라고 부탁했죠.

5분 미만의 방송용 무대를 1시간 이상의 공연 무대로 확장하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채 경 선 ‘웅알스’ 코너를 <개그콘서트>에서 7개월 했으니까 소재를 다 합치면 2시간 분량이 넘어요. 매일 대학로에서 공연하면서 다들 고 보완해서 해외로 가져갔죠. 사실 방송에서는 웅알거려도 대사를 좀 했는데, 언버벌 코미디로 세계에 나가려면 말을 안 해야 하니까 그게 어려웠죠. 말로 하면 정말 웃긴 내용인데, 대사를 사용하지 못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무대 중앙의 토이 박스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채 경 선 웅알스의 공연은 ‘아기의 시선으로 물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토이 박스에는 휴대폰, 물병, 마이크, 풍선처럼 실생활에서 보는 평범한 물건들이 들어 있죠. 그걸 아이들이 처음 보는 물건인 양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조준우 부시맨 아시죠? 콜라병을 처음 본 부시맨의 반응이 재미있잖아요. 저희 공연도 그래요. 공을 모두 가지려는 아이들이 서로 공을 뺏다 저글링이 되죠. 마찬가지로 비트박스도 도구를 갖고 놀다 보니까 다양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코미디 공연 중에 마술이 등장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이경섭 입에서 줄이 나온다든지, 풍선을 먹는다든지 하는 마술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콜라 마술이예요. 배우들이 콜라를 나눠 마시는데, 섯은 먹고 저만 못 먹는 바람에 화가 나서 콜라 캔을 찌그러트리는데 장면이 나와요. 마술로 찌그려진 캔을 펴고, 캔 뚜껑이 막히고, 제가 그걸 따서 콜라를 부어 마시는데 다들 신기해해요.

해외 공연에서 본격적으로 인정받은 게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었죠? 2010년, 2011년 연속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세계 20개 국가 43개 도시에서 공연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조준우 한국 코미디언 최초로 2017년 12월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무대에 섰을 때죠. 뮤지컬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니깐요. 코미디 전문 극장 소호 시어터의 초청을 받아서 2017년 12월부터 5주간 꽤 밀리 코미디 쇼로 진행했어요. 거기서 아시아권 배우들이 장기간 코미디 공연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 만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소호 시어터와 입장권 수익을 나눠 가졌고, 에이전시

도 있어야 해서요. 하지만 저희의 꿈이었던 웨스트엔드 무대 진출 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문턱 높기로 유명한 예술의전당에서도 웅알스 10주년 기념 공연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조준우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1차 공연이 끝나면,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앙코르 공연을 열 예정이예요. 대관 공연이 아니라 예술의전당 30주년 기념 초청 기획공연이라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도 대관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코미디 장르라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2015년도 수시 모집에서 갑자기 허가가 나서 2주간 공연했죠. 메르스 사태가 있던 때라 정확히 기억해요. 2015년 6월 1일이예요. 그 덕분인지 2016년 3월 국립극장 달오름 무대에도 입성했죠.

코미디 장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채경선 2010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할 때 돈이 없어서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을 찾아갔죠. 근데 선정이 안 됐어요. 코미디는 지원 사례가 없다고요. 그러다 저희가 자비를 들여 해외 공연을 다녀오면서 차츰 인정받게 됐죠. 이후 지원 장르에 코미디가 신설됐고요. 나중에 다시 신청했을 때는 해외 페스티벌 참여에 대한 항공료를 지원받았어요. 코미디가 국내에서 공연예술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기쁩니다.



(왼쪽부터) 하박, 최기섭, 채경선, 최진영, 조준우, 이경섭, 조수원으로 이루어진 옹알스.

조준우 작년에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했던 ‘서커스 넥스트’ 워크숍도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재단에서 초빙한 ‘태양의 서커스’ 저글러에게 한 달간 120시간 수업을 듣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디션으로 교육 대상자를 뽑았거든요. 올해도 개설되면 좋겠어요. 이번엔 이경섭 씨도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코미디가 국내외에서 공연예술로 재조명되면서 힘이 나시겠어요. 공연 10주년을 맞은 옹알스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채경선 올해는 ‘고진감래’(苦盡甘來)로 표어를 정했어요. 이제는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코미디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선배들이 못했던 것도 이뤄보고 싶어요. 좋은 선례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해요.

조준우 올해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도전할 계획이에요. 저희 예술의전당 공연 홍보를 전담하는 윤소그룹이 일본 코미디 그룹과 자매결연되어 있어서, 일본 공연도 타진해보려 합니다. 멤버 중 한 명이 현재 아프다 보니 각자의 컨디션 보완에 신경 쓰고 있어요.

멤버들마다 자기 관리 비법도 다양하다. 비트박스 담당인 최기섭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그와 같은 파트너 최진영은 비타민제와 오메가 3를 즐겨 먹는다고, 팜

이 많은 이경섭은 실수를 막기 위해 땀 억제제를 먹는단다. 댄싱머신 하박은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집 밖에 잘 안 나간다”는 독특한 건강법을 내놓았다. 쉬는 날 술을 마셔도 집에서 마시고, 친구도 집으로 부른다고. 건강 문제로 인터뷰에 불참한 조수원은 혈액암으로 1년 넘게 투병 중이다. 항암치료로 호전되어 가던 중 웨스트엔드 무대에 서기 직전 암이 재발했지만, 꿈의 무대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공연에 함께했다. 귀국 후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술의전당 10주년 공연 첫 무대에 섰다. 지금도 항암치료 중이지만 무대에 서려는 의지가 강하기에 반드시 털고 일어나리라 동료들은 믿는다.

옹알스는 “우리 웃음의 대상은 전 지구인”이라고 말한다. 나이, 국가, 언어, 성별에 관계없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를 꿈꾸기 때문이다. 신체적 결함이나 인종, 성별을 웃음 코드로 삼아 비꼬는 일부 코미디에 비하면 착하기 이를 데 없는 목표다. 조준우의 다음 말은 의미심장하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덜 웃기더라도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상처 없는 코미디’를 지향하게 됐어요.”

옹알스 멤버들을 만나기 전에는, 공연 10주년을 맞이한 그들이 10년 후에 이어갈 공연이 궁금했다. 그 질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소재는 달라지더라도, 누구도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언어를 쓰는 인종도 이해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코미디인 건 변함없을 테니까.

글 고정원 자유기고가 사진 최성열 사진 제공 옹알스





안무가 · 무용수 차진엽

경계를 넘어 새로운 춤으로

젊은 안무가 중에서 그만큼 폭넓게 활동한 사람이 있을까? 인터뷰를 위해 받아본 안무가 차진엽의 이력서는 10쪽을 훌쩍 넘긴다. 타 장르와의 융·복합 작업, 해외 안무가와의 합작, 해외 연수 및 워크숍, 강연, TV·영화·광고 출연 등 한 예술가가 치열하게 걸어온 자기실현의 여정이었다.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길로 향하는 그는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춤 잘 추는 무용수이자 춤 잘 만드는 안무가, 차진엽을 만났다.

관객이 작품을 완성한다

안무가 차진엽은 자신이 만든 작품에 무용수로 꼬박꼬박 출연한다. 춤추는 것을 좋아해 자신의 이야기를 안무로 확장시키고 싶었다는 그는 여전히 무용수라는 호칭을 좋아한다. “초기 작품은 감정의 배 출구 같았다”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먼저 던진다.

“무대 위의 무용수들은 작품에 흠뻑 빠지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힐 때가 있어요. 출연하지 않고 안무만 했다면 저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관객의 입장에서 작품을 생각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현대 춤들이 얼마나 관객을 불편하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두컴컴한 객석에서 수동적으로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영감이나 자극도 없이 지쳐버릴 때가 있다. 안무가는 작품을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작품을 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같은 공간에서 퍼포머와 밀접하게 교감하기를 원했다. 작품의 주제를 정하기도 전에 관객 참여에 대한 열망이 자연스레 앞섰다.

“관객과의 관계, 공연의 형식, 새로운 공간의 활용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담을 지는 나중의 문제였고요. 마크 로스코가 남긴 ‘그림은 붓을 놓은 시점이 아니라 관객이 비로소 작품과 교감할 때 완성된다’는 말을 좋아해요. 관객이 작품을 완성하지요.”

장소특정적(site-specific) 공연을 통해 관객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켰다. 문화역서울 284 RTO극장에서 열린 ‘컬렉티브 에이’ 창단 공연 〈Rotten Apple〉(2012)은 건축-관객-퍼포머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관객과 퍼포머의 고정된 역할을 대상이자 주체로 확장시킨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은 차진엽의 작품 대다수를 관통하는 주제다. 〈Three Lips〉(2013)는 그리스 비극 중 여인들의 이야기를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트로이의 여인들〉을 재해석했고, 〈Body Orchestra: 누가 그녀의 빨간 구두를 훔쳤을까?〉(2013)에서는 여성의 욕망을 안테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에 빗대어 그렸다. 〈Rotten Apple〉(2012)과 〈Fake Diamond〉(2013)에서 탐욕과 허영에 덮인 현실을 여성의 시각에서 통렬히 풍자하는가 하면 〈춤, 그녀... 미치다〉(2014)에서는 열정적인 무용가이자 감성적인 여성으로서 안무가 자신을 그대로 투영한 춤 독백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개관한 문화비축기지에서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춤 전체를 ‘여성’이라는 일관된 고리에 연결 지은 작품 〈미인: MIIN- Body to Body〉를 공연했다. 여혐, 비혼주의와 같은 사회 이슈를 다룬 작품에서 여성의 관점이 더욱 풍부하게 감지된다.

“온전히 여성 본연의 몸 자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성의 몸을 둥근 원(圓)으로 생각해요. 〈리버런〉(2015)이라는 이전 작업에서부터 원의 개념이 명확해졌죠.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함, 생명의 순환, 윤회, 우주의 섭리와 같이 끊임없는 변화와 반복을 뜻하는 원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성의 몸과 맞닿아 있어요.” 〈Body to Body〉는 여성의 몸을 상징하는 원형의 공간에서 펼쳐졌다. 둥글고 축감적인 사운드가 공간을 감싸고 영상 이미지로 생성과 소멸, 합체와 분리를 반복하는 카오스의 원형 패턴이 투사된다. 바닥을 빨갛게 칠하고 그 위를 모래로 덮었는데 무용수들이 움직일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빨간색이 마치 여성의 속살처럼 보인다. 벽면을 에워싼 유리에 반사되는 무용수들의 모습(reflection)은 미의 기준에 따라 성형 복제되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지적하는

듯하다. 이 작품은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으로 꾸준히 보여준 차진엽은 문화비축기지라는 새로운 공연장을 발굴해 춤 공연을 처음으로 시도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심분 활용한 창의성과 작품의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평과 함께 한국춤평론가회가 수여하는 ‘2017 춤평론가상’ 작품상의 영예를 안았다.

융·복합, 춤 경계의 확장

작가주의적 관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무용단과 달리 ‘컬렉티브 에이’는 안무가를 지칭하지 않는다. 단체명은 집단을 뜻하는 컬렉티브(Collective)에 ‘모든 종류의 예술들’(All kinds of Arts) 혹은 단수명사 앞에 붙는 ‘하나’의 의미인 에이(A)를 합성한 것으로, 여러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일까? 차진엽의 작품은 설치미술, 영상, 사진, 의상, 음악, 사운드아트,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만나는 융·복합 예술의 본보기가 되곤 한다.

“다른 장르들이 춤을 보조하기 위해 단순히 작품에 귀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융화되기를 원해요. 제 것만을 강조하지 않고 협업 아티스트들의 고유한 성격을 존중하면서 ‘공동작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죠.”

춤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융·복합은 의욕만으로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의식 없이 쫓는다면 작품 전체를 퇴색시키는 양날





1



2

의 검과 같다. 융·복합이 작품에 어떤 의미를 떨지 염두에 두고 타 분야를 끌어들이며 춤과 어우르는 차진엽의 탁월한 감각은 그런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노마드, 춤 창작의 자세

융·복합 속에서도 춤의 기본 자리는 결국 움직임이다. 차진엽의 움직임은 몸의 감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스라엘 바체바무용단(Batsheva Dance Company)의 오하드 나하린(Ohad Naharin)이 개발한 가가테크닉은 극단의 감각을 이용한 역동적인 안무법으로 국내 현대 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2000년대 중반에 그는 가가테크닉을 이어받은 영국 호페쉬 섹터 무용단(Hofesh Shechter Company)과 네덜란드 갈릴리 댄스 컴퍼니(NDD/Galili Dance)에

©유성원



3

- 1 <미인: MIIN- Body to Body>(2017).
- 2 <춤, 그나... 미치다>(2014).
- 3 <Rotten Apple>(2016).

서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발 먼저 감각에 기초한 춤을 체득했다. 덧붙여 세계적인 안무가와와의 작업은 무용수로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안무가로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몸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한다. 귀국 후 그는 본격적인 안무과정에서 감각으로부터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했다. 형태를 만들어 몸을 구조화시키는 안무법과는 상반된 접근이다. 차진엽의 안무 특징을 문자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을 잇는다. “경우에 따라 변해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만의 스타일이나 춤 색깔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영민한 아티스트들이 고유의 춤 어법을 구축하는 것에 비해 저는 계속 유동적인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무용수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안무 방식을 찾아내고 있다. 현대무용수 두 명, 한국무용수 한 명, 배우 한 명, 보디 모델 한 명이 출연한 <Body to Body>에서는 현대무용수로만 구성된 그간의 창작과정과 사뭇 다른 움직임 조합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는 출연진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인물을 꼬집어내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한다. 고정된 틀, 특정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아 유랑하는 안무법이야말로 다음 창작을 자극하는 원동력일지 모른다.

“나만의 확고한 안무법을 만들겠다거나 훌륭한 작품을 남기겠다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스타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행위를 하고 작업을 이어나가는 창작자, 다음엔 뭘 할지 궁금해지는 아티스트였으면 해요. 저는 언제나 과정 중에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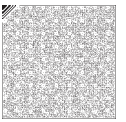
글 김인아, 춤웹진 기자 사진 오계옥 사진 제공 콜렉티브 에이(Collective A)

서울시 축제평가 간담회

줄 세우기 평가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들



사회	장재환 서울문화재단 축제팀장
토론	표신중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이사 조영선 2017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프로그래머
일시	2018년 1월 11일 오후 2시
장소	시민청 동그라미방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축제, 민간 축제, 마을 축제를 포함해 연간 400여 개의 축제가 열린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축제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지역특성 문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와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가 개정되면서 축제평가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다. 축제를 평가해서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축제계획 수립과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¹⁾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축제나 축제성 행사들을 평가할 당위성은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축제평가는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서울시 축제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들과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재환
서울문화재단 축제팀장

장 재 환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축제지원센터의 평가 결과를 지원 선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축제와 행사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축제 자체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이 행사가 정말 축제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관점도 달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공공의 재원을 받아 진행되는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평가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표 신 중 외국에서도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를 해서 줄을 세우는 사례가 있나요?

추 미 경 오래전에 제가 여러 나라의 예술경영 분야 종사자들이 만나는 행사에서 요즘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영국 사람이 관심을 표현한 적은 있어요. 페스티벌 평가를 했으면 하는데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조 영 선 재작년 영국에 갔을 때 우리처럼 어떤 항목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아니라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연구해서 지표로 개발하고 DB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방향성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축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DB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 신 중 저는 다른 나라에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서 축제를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축제가 형

성된 과정이 특이하고 거기에서 오는 차별성 때문에 평가제도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축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산물이에요. 관 주도이기 이전에 축제 자체가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상한 사회가 되었어요. 축제가 축제다워지는 기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판가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시피 축제는 기술적인 개선 이외에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다다른 것 아닌가요.

장 재 환 재단에서 2016년 이전까지 실시한 축제평가는 축제의 발전과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평가라는 용어 자체를 적용하기 애매했는데요.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의 재원이 지원 목적이나 내용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이 축제평가로 유입되다 보니 축제를 평가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평가를 피해갈 수 없는 한국적인 상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 신 중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분명 평가라는 것의 기저에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지요. 이견 상당히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8조 축제의 평가 ③, ④항.

후진적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공공성 등을 이유로 뒷걸음질 쳤어요. 평가자들과 연구자들의 비접합도 가세한 결과입니다.

추미경 저는 1997년 안동탈춤페스티벌이 처음 생길 때 작은 실무를 맡아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축제평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2003년 원주 '세계 평화파파르' 축제 때 평가가 아니라 축제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와서 지역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일을 진행한 적이 있고요. 2001년 부천국제영화제 평가연구도 축제의 상태를 진단하고 현재 수준에서 미션, 비전,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재정립할지를 고민하면서 진행했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나 서울시의 축제평가에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축제가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과정 없이 많은 부분들이 급조되고 행정 서비스의 개념으로 추진되다 보니 갑작스럽게 늘어난 축제를 평가해야 하는 거고요. 축제의 내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 감시를 하거나 선부르게 재단하고 무리하게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공공재원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제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 축제마다 어느 정도 자기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어떤 관점이나 방향으로 축제를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선 축제평가 중에서는 '문화관광축제 평가'가 가장 오래되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피평가자의 입장에서 지표를 보면서 압력 아닌 압력을 받았어요. 행정기관에서는 지표에 맞춘 축제기획에 대한 기대가 어쩔 수 없이 생겨나거든요. 불필요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반항심이 일기도 했어요. 기술이나 외형적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축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표준화된 기성품 같은 축제가 되는 건 아닌지, 개성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4년에 서울문화재단은 평가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고요. 몇몇 축제들이 이를 새롭게 느끼고 노력하는 면면을 경험하면서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좋은 사례의 축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와서는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지금의 평가방식은 재단이 처음 생각했던 방향성을 놓치고 가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평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되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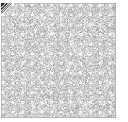
표신중 외국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소를 중심



표신중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으로 평가하고 축제의 내용이나 비전같이 주관적 요소가 강한 내용에는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표에 의한 평가보다는 리뷰, 평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뤄요. 예술작품에 순위를 매기는 일이 가능하지 않듯이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축제에 순위를 매기지 않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입니다.

추미경 '문화관광축제 평가'에 꾸준히 참여했는데요. 관광 분야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지표가 많았고 그 지표에 맞추다 보니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축제가 똑같아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문화 분야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표에서 예술과 문화를 일부 수용하기는 했지만 한계가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행사 평가'는 비교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편이었는데 프로그램 평가는 비평가들이 하고, 운영은 예술경영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공개하는 보고서를 보면 이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서울문화재단의 평가체계는 3개 중에서 지표가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견고해요. 지표들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 축제에 대해서 할 말은 따로 있는데 형식에만 맞춰 쓰게 되더라고요. 지표를 몇 개 바



꾸는 문제가 아니라 지표를 설계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재환 평가의 기능은 축제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며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요. 평가지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중복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고요. 전문 평가자와 시민, 축제기획자 간 평가에 대한 관점과 결과에 차이가 있어서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지표에 대한 주체별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평가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축제 유형별로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가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추미경 서울의 축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설정해놓으면 축제를 평가하는 이유가 보다 분명해질 거예요. 지표는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고요. 그 전제 없이 지표를 조정하면 그 의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서울에 맞는 축제지형을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큰 방향이 있고, 그것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 몇 개가 그 방향으로 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야 해요. 지표보다는 앞단에 대한 논의가 더 많으면 좋겠어요.

조영선 평가 지표를 보면서 옳고 그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축제의 주제를 평가하라고 하는데, 매년

만드는 슬로건을 주제로 볼 것인지, 축제의 근본적인 특성을 주제로 볼지도 애매하거든요. 마을 축제를 평가하는 이유가 축제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평가가 아닌 컨설팅이나 멘토링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시에서 하는 대규모 축제와 민간에서 100만 원 단위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축제는 결이 달라서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나눠서 가자는 정도의 논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표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입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회의가 들긴 했어요.

표신중 일단 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다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와 돈이 연관되어 있는 한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추미경 서울시가 1년에 수억 이상 투자하는 대표 축제와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들여서 그 마을주민들이 뭉치고 놀게 하는 축제는 개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도 다를 거고요. 그 효과에 맞는 진단 지표나 컨설팅 지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표신중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서울시 축제정책의 핵심입니다. 독일 맥주축제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은 4명이 있어요. 이 공무원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다뤄요. 맥도날드가 엄청난 후원 비용을 내고 축제에 들어올 테니 부스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들어올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정책이거든요.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조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결정해요. 시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지만 그 지역의 맥주산업과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4명이나 따로 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책이에요. 지원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좋은 축제를 만들 것인가가 서울시 축제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책 외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요. 돈을 배분하는 것만 정책으로 삼고요. 이를테면 시민 주도형 축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변화인데요. 왜 시민 주도형 축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토론한 흔적도 없고 논의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공동체가 좋은 거니 좋은 거’라는 정도의 논리밖에 없거든요. 축제정책의 질적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담론이 없어요. 저는 이제 평가 말고 리뷰를 하자고 얘기해요. 두 축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능성 있는지를 누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지금은 축제감독 혼자서 지고 간다고요.

조영선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해외 아티스트들은 축제에 참여한 후 공연을 어떻게 보았고 축제가 어땠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조영선

2017 ACC 광주프린지인터네셔널 프로그래머



싫어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장재환 정책의 질적인 수준이 아직 올라서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만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경직된 상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 담론을 형성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영선 저는 공공재원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해요. 그런데 유독 문화예술, 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 대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결과물을 바라거나 기대치가 높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 문화예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축제 예산은 훨씬 적은데요. 여기에 이런저런 잣대를 적용하고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신중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임자들은 다 쫓겨나고 기술자만 남으면서 임자 없는 축제들이 생겼어요. 축제에 미쳐서 축제를 진짜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는 주체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90년대와 20년 후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 중 하나라고 봐요. 장사꾼처럼 내몰아서 축제전문가들이 축제대행구조에 있지 못하게 되었어요. 일본만 해도 세계적인 축제기획자들은 다 대행사에 있어요. 우리는 축제기획자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다 떠돌이예요. 지금의 축제는 임자를 키우지 못하고 내쫓는 구조입니다. 기능으로만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문화기획자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과격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준 이하의 축제는 좋은 사람을 불러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럴 의지마저 없어요. 지역구의 수요를 들어주고, 국회의 청탁을 들어주는 일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

추미경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는데요. 한국에 문화매개자, 문화기획자 직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상이 사라졌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많이들 프리랜서로 움직여요. 우리는 공공이 그 역할을 수행해버리다 보니 기획자는 갈 데가 없고 개별로 있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기획자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장재환 축제에도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틀을 깨기 위해서는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지역에서 기획하는 분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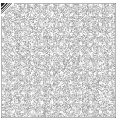
추미경 지금은 담론도 다 공공에서 나와요. 안타까운 건 공공이나

관에서 얘기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관’과 ‘민’을 연결하는 역할이 텅 비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재환 두 번째,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의 근거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을 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평가자료를 가지고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선 평가를 하면서 축제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이고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관이나 축제조직이 분명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다르게 접근해서, 76개 중 3~4개라도 좋은 선례가 나오면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본인들이 개선할 의지가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같이 호흡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보이는데요. 평가위원들도 컨설팅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 관계 규정과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미경 서울시 지원 예산을 포함해 연간 축제 개최에 드는 총 예산이 200~300억 원이나 되는데 이를 2억 원의 예산으로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재단에서는 그 예산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면 좋겠어요. 재단이 축제 컨설팅을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 하는 건강한 정책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아카이빙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한 축제는 몇 군데 없을 텐데요.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아카이빙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확실하게 DB화하고 그 통계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컨설팅보다는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을 때 수용 태세가 있는 곳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축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들여서라도 컨설팅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게 좋고요. 어떤 축제는 컨설팅보다는 축제를 더 잘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협력 구조, 멘토링을 해준다면 시스템은 도와주는 편이 낫고요. 아카이빙과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평가를 통해 발굴되는 이슈를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러면 사실 지표가 그렇게 정교할 필요는 없어요. 아카이빙 분류 코드에 따른 자료는



평가단이 아닌 재단이 받아서 축적해야 해요. 아카이빙에 예산을 좀 더 들이고, 현장에 다녀온 전문가들이 이런 축제에는 이런 이슈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니터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해서 줄 세우는 일은 없어져야 하고요.

장재환 평가가 나온 과정과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할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축제를 도와줄지 고민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 같습니다.

표신중 저는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바꾸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지키려고 하겠죠.

장재환 등급제는 서열화하는 일이잖아요. 순기능으로 작동하면 좋은데 지원받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축제의 등급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평가라는 잣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최하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5년 동안 3번 이상 최하등급을 받으면 지원에서 배제되거든요. 자치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신중 지금 쓰레기 같은 축제들이 2억 원씩 받아가고 있어요. 정말 앓아 있기 괴로운 축제가 태반이거든요. 실제로 축제지원은 의미가 없어요. 버리는 돈으로 처야지요. 현실적으로 손을 댈 수 없어요. 이걸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밀어내고 나면 또 다른 게 들어와요. 눈먼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축제는 차고 넘치게 준비되어 있어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조영선 제한된 예산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조정이나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과 예산이 연단위로 가진 하지만 해마다 개선을 요구하는 건 축제 자체에도 굉장히 단기적인 호흡을 필요로 하거든요. 몇 개의 축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최소 3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면 몇 년 단위로 재조정하는 기간을 거친다든지, 긴 호흡으로 축제를 모니터링하고 준비한다는 느낌을 주는 제도를 재단에서 가이드 해주면 좋겠습니다.

장재환 마지막으로 축제를 둘러싼 정책 환경, 제도, 관계자 사이에서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조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미경 축제 지행도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아카이빙 구축과 평가를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축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슈를



추미경
문화다음 대표이사

발굴하면 서울시를 계속 추동해서 정책 방향이나 조례를 개정하게끔 제안하고 전문가 집담회와 같은 담론의 장도 계속 열고요.

표신중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축제 전문 잡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외의 연구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특별히 점검해봐야 할 것들에 대한 리뷰를 소개하는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3~4개의 중요한 이슈들은 정리해주어야 해요. 지금은 단편적으로 실리는 학회지나 졸업 논문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작되어야 같이 모여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영선 평가의 위상이 예산을 쥐어주는 곳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요. 재단은 다른 기관보다 공신력과 영향력이 있으니 담론을 던져주고 여러 계층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간극을 줄이는 공론의 장을 꾸준히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재환 축제지원센터에서 <THE 축제>라는 웹진을 작게 만들고 있는데요. 구성을 조금 더 잘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평가를 얘기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고 축제평가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건강한 축제 생태계와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재단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 토론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문화+서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공예작가 이문혁

레진의 ‘색’다른 변신

이문혁 작가는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 유도선수의 꿈을 접고 뒤늦게 공예작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색약이라는 약점 또한 극복하고 레진을 소재로 독창적인 색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공예작가가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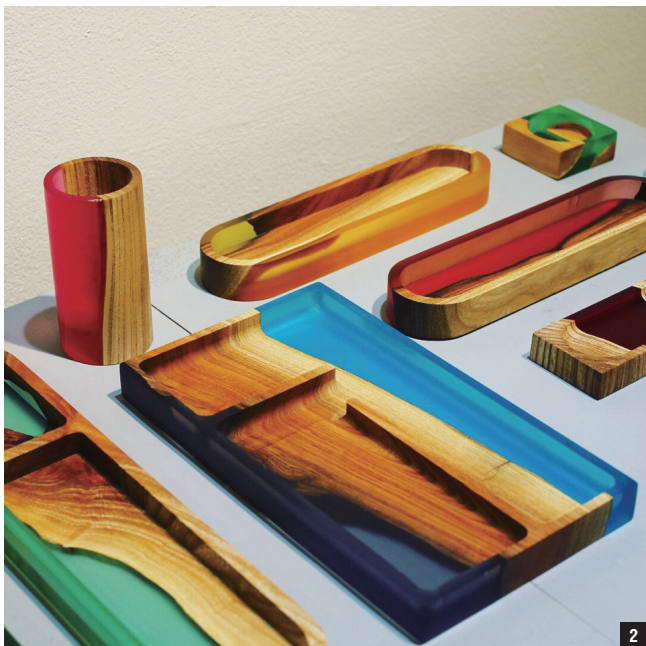
지금 이렇게 작업할 수 있기까지 평탄하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술을 전공하고 예술 분야에서 활동할 줄은 몰랐다. 어렸을 때부터 유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 운동선수라는 꿈을 접었다. 좌절감과 상실감이 컸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해보았고 문득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 종이접기 책을 사 종이를 접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프라모델 등을 만드는 게 취미가 됐다. 공예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대학 입시

는 만만치 않았다. 공예과에 진학하려면 미대 입시학원을 다녀야 했고 수능이라는 벽도 있었다. 운동만 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 기초가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학원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입시 준비를 했고 재수를 해 공예과에 진학했다. 재수를 할 때 알게 된 나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색약이라는 것이었다. 미술학원에서의 일들이 그제야 이해가 갔다.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색을 봤고 남들에게는 강렬한 색이 나옴엔 그다지 강렬해 보이지 않았다. 색약이라는 사실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현재는 작업에 있어 약점이 아닌 장점이 되고 있다.

레진의 무한 매력

대학 때 목공예와 금속공예를 전공했는데, 졸업 전시 준비를 하며 이 두 가지 외에 ‘레진’이라는 재료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 3, 4학년 때는 레진에 대한 기초 지식도 별로 없고 계획 없이 사용해 실패를 많이 했다. 하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쌓여 지금은 소중한 나의 데이터가 되었다. 새로운 작업을 할 때 바로 성공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때문에 항상 테스트를 해보고 신중하게 제작에 들어간다.

합성수지인 레진은 현대 산업에서 다방면에 사용되며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레진은 예술에서도 많이 사용되므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레진은 국내보다는 해외 작가들이 선호한다. 최근 들어 레진을 사용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1, 2 <Resin Desk Services_1>, 레진, 느티,
80x190x30, 200x200x30mm, 2017.
윤정무 작가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

3 <틀>, 메이플벌, 마파벌, 음핑고, 레진,
월넛, 30x100x190, 30x250x130,
30x100x190mm, 2016.

4 <툼>, 레진, 느티, 300x300x480mm,
2016.

5 이문혁 작가.

작가들이 많이 생겨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며 배우고 싶다.

액체인 레진은 경화제를 섞은 후 시간이 지나면 고체로 변한다. 주로 투명레진을 사용하여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색을 만든다. 원목의 색상은 한정적이다.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의외로 색이 많긴 하지만 비슷한 계열이고, 강렬한 색은 없다. 그래서 레진과 원목을 사용할 때는 일부러 원목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질적인 색상을 많이 쓴다. 이런 이질적인 색상이 눈에 들어오고 좋아하게 된 데는 색약이 한몫했다.

매일 레진의 색을 조색하며 새로운 색을 발견한다. 색상표를 만들면 같은 색을 편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양을 제작해놓고 작품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목재의 면적과 깎인면의 빛 투과율 때문에 같은 색이 나오지 않는다. 목재소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를 활용하기에 같은 모양이 없다. 때문에 가공 후의 모습도 최종 가공을 해봐야 알 수 있다. 그게 이 작업의 매력인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시도하며 물성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다.

도전하고 노력하는 작가로서의 삶

요즘 제일 큰 관심사는 '재료의 융합'이다. 현재는 레진을 목재와 금속에 주로 사용하지만 다른 재료와도 결합해보고 싶다. 목공예를 전공한 윤정무 작가와 공동으로 가구를 제작해 전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다른 작가들과도 협업해보고 싶다.

색상에 대한 영감은 주로 전시와 영화에서 얻는다. 내가 느낀 시각적 색상을 사진을 찍어 간직한다. 전시나 영화뿐만 아니라 쇼핑을 하며, 혹은 길을 걷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사물이 생기면 사진을 찍어둔다.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나가서 한숨 돌리고 에너지를 얻는다.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나는 작업을 할 때 만큼은 힘든 일도 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좋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해나가며 더 열심히 작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싶다.

글·사진 이문혁, 색약이라는 핸디캡을 독특한 색감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청년공예작가.



겨울은 껍질이 두꺼운 계수나무다
 어린 나무가 겨울 앞에 꺾꽂힐 수 있는 건
 바람 맞을 잎이 없음이다

탁명주의 시 <겨울나기> 중에서



천경자, 이우환 위작 논란이 촉발한
'미술품 유통법'

위작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술품 위작죄'가 있다. 위작 미술품 제작은 물론 유통을 한 사람까지 '위작죄'라는 법령으로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위작죄' 대신 사기죄 혹은 사서명 위조죄로 처벌해왔다. 기존보다 벌금이 최고 2,000만 원 높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술품 유통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16년 6월경이니 약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최종 의결된 안은 초안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의 위작 유통 과실 직접 증명' 조항은 삭제됐고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 거래 내역 신고제 등도 모두 완화됐다. 법안이 '벌집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한편, 일부에선 미술품 유통이 위축돼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 1 천경자, 이우환 위작 논란은 결국 '미술품 유통법'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특별전: 군열>을 통해 26년 만에 대중에 공개된 <미인도>.
- 2 '미술 정책 종합 토론회' 웹포스터.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중장기 미술 정책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술 정책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술품 유통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미술품 유통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다른 하나는 위작에 관한 부분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기타 미술품 판매업으로 분류하며 화랑업과 경매업은 등록을,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미술품





미술 정책 종합 토론회

2017. 12. 13(수) 2:00~5: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

프로그램

구분	시 간	내 용
1부 주제 발표	2:00 ~ 2:10	행사소개 및 개회
	2:10 ~ 2:30	기조발제 : 미술진흥 정책의 방향과 과제 양정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30 ~ 2:45	발제1 추경준(미술동계편역) 제도 도입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2:45 ~ 3:00	발제2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홍승훈 (국립현대미술관 교수)
	3:00 ~ 3:15	발제3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계개선 방향 이경근 (한국법원행정처장)
2부 종합 토론	3:15 ~ 3:30	발제4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추진현황 신은향(문화체육관광부 차관)
	3:30 ~ 3:50	총 질 의
3부 토론	3:50 ~ 5:20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상정훈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양정우 (국립현대미술관 교수)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기획이사) 홍태형 (예술인소셜유니온)
	5:20 ~ 5:30	종합평리 및 폐회

* 좌장 : 최병식 교수(경희대학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재단 후원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 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낙찰 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감정업 분야에서는 등록제 도입(2년간 유예), 감정업자의 허위 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 감정서 사용, 특수 이해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감정 금지 등의 의무 부과 등이 규정됐다.

한편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에게는 최고 10년형 또는 1억 5,000만 원 벌금의 중벌이 가해진다. 계약서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허위 감정서를 발급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벌칙 조항과 미술품 유통법상 벌칙 조항은 양벌 가능하므로 위작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형은 낮지만 벌금을 더 높였고,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하기에 사기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사유 재산 사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을 처벌했다면 이번 법안은 사회 신뢰와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초안과 달라진 점

미술품 유통법은 2016년 6월 시작된 정책 토론회 이후 10월 문체부 초안 발표, 규제개혁위원회와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수정됐다. 초안과 최종 의결안의 가장 큰 차이로는 유통·감정업자의 위작 유통 과실 직접 증명, 화랑과 경매사 겸업 금지, 거래 내역 신고제 등이 꼽힌다. 위작 손해배상을 놓고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에 입증 책임을 지우려던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제외됐다. 갤러리현대와 가나아트 같은 대형 화랑이 경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랑과 경매업 겸업 금지’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자사 경매 참여 금지’ 등 제도적 장치로 완화됐다. 유통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거래 내역 신고제도 거래 내역 자체 관리로 변경됐다. 다만 계약서·보증서 발급, 거래 내역 자체 관리 등을 의무화한 만큼 이러한 기록들이 축적되면 필요시 특정 작품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 부분에 미술계가 느끼는 부담이 컸다”라면서 “2019년부터 예술품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시행되기에 이력 관리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은 미술품감정연구센터 지정안으로 바뀌었다.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는 인력이 충분히 늘면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일정과 남은 과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문체부는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2018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랑협회는 정부안에 대해 “법률안이 새로운 정부의 미술 시장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에 반하는 국가 개입 통제주의적 발상이며, 미술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실태조사가 없이 미술계를 불공정 집단으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예술 규제’라는 점은 입법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지점으로 지적된다.

글 이한빛 헬월드경제 기자 사진 제공 헬월드경제



소리 소문 없이 출범한 지역문화진흥원

소리를 지르며 문제를 푸는 행정이 필요하다

생활문화진흥원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지역 분권과 자치, 협업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역문화가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편을 단행했다고 하나,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비전도 없이 기관만 만들어 중앙정부 중심의 효율적 집행을 추구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원’에 관한 3가지 에피소드

[에피소드 1]

2017년 11월 7일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는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 청책(聽策)포럼’이 있었다. 필자는 그날 ‘지역문화진흥법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현재의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 관리법으로, 진정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이 우선권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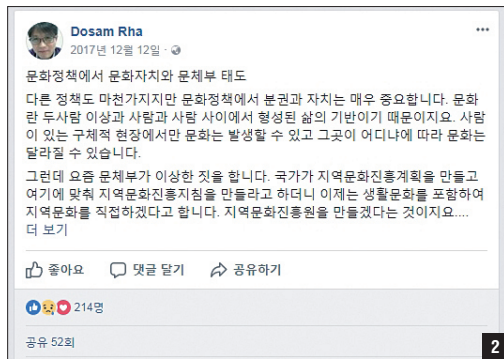
이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문화의 현장인 지역을 모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쟁에서 전장의 상황을 모르고 작전을 수립하는 것과 같다. 상황실은 자기 일을 다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전쟁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은 진다. 그래서 상황실은 전장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병사를 탓할지 모르지만, 어디 그게 병사만의 탓이라! 그러나 그날 조금 일찍 나와 상황을 모르는 나에게 전달된 말은 상황실이 전장의 병사를 탓했다 한다. 불평만 한다고!

[에피소드 2]

새 정부의 문화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요즘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나도 그 조직에 속해 있다.

12월 11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도중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얘기가 나왔다. 구체적인 일이나 위상에 대한 정리 없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고, 다음 주에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12월 12일 준비단 SNS 단체방에 ‘지역문화진흥원’ 쇼핑백이 올라왔다. “대체 뭐지? 문체부가 요즘 기관을 만들 때 쇼핑백부터 만드나? 그럴 리는 없고, 아니 벌써 만들었다는 말인가? 사전 협의나 논의도 없이? 이게 말이 돼?”

누구도 몰랐다. 화가 났다. 어떤 절차나 공개적 과정 없이 하나의 기관이 설립되었다는 데 화가 났다. 그래서 이른바 ‘폐복질’을 했다. ‘문화정책에서 문화자치와 문체부의 태도란 제목하에 미션도 없이 기관부터 만들고 보자는 태도는 무엇이나고 물었고, 정부가 지역에 벌여놓은 일에 대해 정리할 생각 없이 또다시 기관을 만들어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연방



© 서울연구원 문화정책팀

연혁		
	2017년 12월 00일	기관명칭 변경(생활문화진흥원 → 지역문화진흥원)
	09월 07일	'2017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07월 28일	2017 생활문화 지역홍보단 제1기 구성 문운
	2016년 10월 29일	'2016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05월 10일	법안심의 등기
	05월 04일	법안 심의 허가, 원장(나기주) 취임

- 1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개편되었음을 알리는 누리집 문구.
- 2 라도삼 선임연구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지역문화진흥원에 대한 글.
- 3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연혁에는 기관 명칭 변경일이 '2017년 12월 00일'로 되어 있다.

제 수준의 자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적었다. 조금은 화가 나서 그리고 나아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쓴 글이었다.

반향은 뜨거웠다. 많은 댓글이 달렸고, 총 52회 공유되었으며 213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참고로 내 '폐친'은 1,428명이다. 여러 곳에서 전화도 왔다. 대부분은 동의한다는 내용이었고, '몰랐다', '알아보겠다' 식의 반응도 있었다. 제법 문제가 공유되는 듯했다.

[에피소드 3]

12월 19일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한테서 문자가 왔다. "모든 일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수행 주체 변경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외부 지적에 따라 내년 사업부터 생활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다양한 지적으로 부득이 생활문화진흥원 명칭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위해 생활문화진흥원을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바꾼다고? 도대체 왜?

함께 노력하여 문제를 풀어갈길 기대한다

준비단은 2017년 12월 7일, 2030년 문화비전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문화란 본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인데, 그간의 정책에서

는 외생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강요했던 바, 이제는 그것을 본래의 가치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사람이 있는 문화'다. 곧 예술이나 콘텐츠의 강요로 문화가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로운 비전 취지다.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위해 지역문화진흥원을, 그것도 생활문화진흥원을 없애면서까지 만들겠다고? 왜?

지역문화진흥원이란 이름을 쓰려면 최소한 지역문화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원 조직 구조상 그 어디에도 지역은 없다. 2개의 조직 중 하나는 '사무국'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이다.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생활문화에 대한 것과 지역문화인력 배치와 활용, 문화이모작, 평창 문화올림픽 문화자원봉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은, 지역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기관을 만들 때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 절차가 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의 기관 연혁을 보면, 유독 기관 명칭 변경일만 '2017년 12월 00일'로 되어 있다. 기관 명칭 변경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왜 그 중요한 기관 명칭 변경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달을 가리킬 때 손톱 밑의 때를 보아선 안 된다. 분명히 말하자.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문제는 특정 날짜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적절한 절차와 방식 없이 전환되었다는 것이고, 지역문화가 아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며, 지역문화 진흥(원)에 대한 비전 없이 기관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부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전장에서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장이 상황을 모르는 작전실에 의해 통제되고 그로 인해 진다면 억울하다. 상황실의 병사는 피해를 입지 않을지 모르나 전장에서 뛰는 병사는 죽을 수 있다. 지금 지역에서 뛰는 병사는 '탄환 없는' 총을 들고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싸우고 있다. 이를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래서 각 지역의 꿈을 읽고 이를 후원하고자 노력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 새 식구를 들이기보다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판을 만드는 것이다. 함께 노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러하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소리 소문 없는 문화행정이 아니다. 소리를 질러가며 문제를 푸는 행정이 필요하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 우리 행정에 그런 자신감을 기대해본다. 별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다.

글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평창 문화올림픽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2월 3일 강릉원주대에서 열리는 문화올림픽 개막 축제와 함께 본격 가동된다. 올림픽 기간 동안 공연과 전시는 물론 설치미술과 축제, 포럼 등 40여 개 분야에서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평창 올림픽플라자, 강릉 올림픽파크를 비롯한 전국 27개 라이브사이트(Live Site)를 중심으로 실 새 없이 펼쳐진다.

평창 문화올림픽은 ‘평화’를 메인 테마로 진행된다. 2월 9일 ‘피스 인 모션’(Peace in Motion)을 주제로 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인다. 갈등을 극복하고 천 년의 평화를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댄스 퍼포먼스 <천년향>과 예술인들이 DMZ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DMZ 아트 페스타 2018 평화: 바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북한이 역대 최대인 140명 규모의 ‘삼지연 관현악단’을 파견하고 서울과 강릉, 두 곳에서 공연을 추진하고 있어 올림픽 이념인 ‘평화와 화합’의 장 실현에 문화가 독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국제 행사도 속속 선을 보인다. 국내의 대표적인 거리축제,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의 올림픽 버전인 <2018 원주 윈터 댄싱카니발>이 원주에서 펼쳐지고, 국내 최대 클래식 축제인 <2018 평창 겨울음악제>와 ‘악의 사전’을 타이틀로 한 <강원국제비엔날레 2018>은 강릉 등지에서 개최된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강원도의 이야기를 미디어쇼로 구성해 강릉 솔향수목원 2.6km 구간에 풀어놓는 숲속 미디어아트 <靑山☆谷(청산별곡)>과 동해바다의 일출을 모티브로 한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 등이 기대를 모은다.



- 1 개·폐회식장 조감도.
- 2 댄스 퍼포먼스 <천년향>.
- 3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

한 편의 공연처럼 펼쳐질 개·폐회식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상징성과 지향점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행사가 바로 개·폐회식이다. 베일 속에 가려진 개회식은 전 세계인들에게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하공연을 통해 전달한다. 특히 북한 대표팀의 참가가 현실화되면서, 이날 선보이는 퍼포먼스들은 다양한 평화의 의미로 해석되어 문화올림픽과 평화올림픽의 상징성을 전 세계에 타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회식은 '넥스트 웨이브'(Next Wave)를 주제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와 그 미래를 주도할 한국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 이날 선보이는 문화공연의 기본 열개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공연과 공식행사가 열리고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의 문화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융합과 조화, 연결과 소통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막을 내린다.

송승환 개·폐회식 총감독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전통문화부터 미디어아트, K팝, 현대무용과 마임, 디지털 퍼포먼스 등 우리의 현대적인 문화자산을 총동원해 개·폐회식을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한 편의 공연처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목할 만한 평창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천년향>

기간 2월 3일~24일

장소 강릉원주대 해람문화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 단오제를 모티브로 제작된 <천년향>은 평창 문화올림픽을 대표하는 테마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난버벌 형식의 댄스 퍼포먼스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평화를 형상화한 구성이 눈길을 끈다. 가장 큰 특징은 몰입감을 높이는 파격적인 공간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공연장 전체를 무대로 만들어 관객들도 공연의 일부가 되도록 한 것. 여기에 강원도의 숲과 호수를 공연장 안으로 옮겨놓은 듯한 첨단 무대기술과 특수효과, 그리고 한국의 춤과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희들의 아름다운 몸짓이 더해진다.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

기간 2월 2일~25일

장소 강릉 경포 해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문화올림픽 공식 메인 행사인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FIRE ART FESTA 2018)은 파괴를 통한 창조, '창조적인 파괴'라는 개념을 도입한 설치미술전이다. 주제는 불을 바치며 부르는 노래, '헌화가'(獻火歌)다. 강릉과 삼척을 배경으로 한 <삼국유사>의 <헌화가>에서 꽃(花)을 불(火)로 살짝 비틀고 새로운 미술형식을 입힌 제의적인 성격의 퍼포먼스다. 해변에 설치된 5m 이상의 미술작품을 정해진 기간에 불태워 완전히 소멸시킨다. 찰나의 순간 '불조각'을 완성하고는 작품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기본 콘셉트. 자신의 작품이 '불멸'하기를 원하는 일반적인 예술가들과는 달리 '역발상'과 '반전'으로 친환경 소재의 조형물을 불에 태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발상이 참신하다.



<DMZ 아트 페스타 2018 평화:바람>

기간 1월 19일~2월 24일

장소 고성 통일전망대, DMZ 일원 16개 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가장 주목받는 공연이다. 2월 1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와 함께하는 평화 기원 전시 및 퍼포먼스가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펼쳐진다. 행사 기간 중에는 창작그룹 노니가 참여하는 상설 공연이 매주 금, 토, 일 열리고 공모와 심사위원회 선발을 통한 자유 참가 공연도 이어진다. 특히 강화, 파주, 철원, 서울, 고성, 서귀포 등 6개 지역에서 특색 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DMZ 평화, 한반도 평화, 세계 분쟁지역의 평화에 대해 미학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전국을 순회한 후 2월 24일 고성 통일전망대로 돌아와 참가한 모든 예술가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난장을 펼치며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2018 원주 윈터 댄싱카니발>

기간 2월 10일~18일

장소 원주 치악체육관 일원

원주를 춤의 도시로 탈바꿈시킨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의 겨울 버전이 올림픽 시즌에 이어진다. 원주 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으로 원주의 접근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돼 올림픽 기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문화올림픽의 '핫 스팟'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8 원주 윈터 댄싱카니발>은 해외 25개 팀 700여 명을 포함해 국내외 100개 팀, 5,000여 명의 참가를 목표로 진행되며, 치악체육관과 야외동공연장 등을 활용한 경

연, 프린지 페스티벌, 부대행사 등이 운영된다. 또 축제 기간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겨냥해 유키 구라모토 신년음악회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홀로그램 융합기술이 더해진 비보잉 퍼포먼스 <브레이크 아웃> 등 다채로운 무대가 연이어 마련된다.

<2018 평창 겨울음악제>

기간 1월 30일~2월 16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1월 30~31일), 춘천문화예술회관(2월 1일), 원주 백운아트홀(2월 2일), 강릉아트센터(2월 2~3일, 16일), 평창 페스티벌파크(2월 10일)

클래식은 물론 댄스와 발레, 국악을 접목한 프로그램 등 풍성하고 특색 있는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러시아 마린스키극장 성악가를 비롯해 정명화-정경화 예술감독과 안숙선 명창, 원주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열음, 스페인 댄서 벨렌 카바네스, 한국계 네덜란드 하프 연주자 라비니아 마이어 등 국내외 참여 예술가의 면면도 화려하다.

앞선 평창 겨울음악제에서 호평을 받은 안숙선 명창, 정명화 예술감독의 판소리와 첼로의 합(合)도 <평창 홍보가> 세계 초연 무대를 통해 빛을 발할 것을 기대된다.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라비니아 마이어와 춘천시향의 협연, 원주 백운아트홀에선 마린스키 성악가들과 원주시향의 협연이 선을 보인다. 평창 페스티벌파크에서는 문화공작소 세움의 퓨전 재즈 연주회가, 강릉아트센터에서는 손열음과 정경화 예술감독, TIMF앙상블의 협연이 펼쳐진다.



- 1 <DMZ 아트 페스타 2018 평화·바람>.
- 2 <2018 원주 윈터 댄싱카니발>.
- 3 <2018 평창 겨울음악제>.
- 4 <강원국제비엔날레 2018> 김승영 작가 작품.

<강원국제비엔날레 2018>

기간 2월 3일~3월 18일

장소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

'악의 사전'을 주제로 23개국 58명의 작가가 작품 110여 점을 선보인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인간 사회의 어두운 역사, 양심과 방임이 교차하는 당대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고민을 예술적 언어로 논의한다. 화합과 상생, 평등과 평화, 인본주의에 입각한 올림픽 정신을 역설로 접근한다는 것이 강원국제비엔날레의 전략이다. 유럽 및 미주·중동 지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비서구권 국가, 국내 작가 등의 작품을 3명의 큐레이터가 담당해 혼란스러운 현실세계를 반영한 '혼돈'을 배경으로 미디어아트, 조각, 설치, 회화, 퍼포먼스 등 현대미술 작품을 총망라해 전시를 구성했다. 오디오비주얼 협업팀 '태식그룹'의 미디어아트, 중국 작가 리 빈유안의 설치 퍼포먼스, 국립현대미술관 수석무용수인 이수진과 심승욱 작가가 함께하는 작업도 주목할 만하다.

라이브사이트로 어디서나 축제 분위기 만끽

올림픽 현장의 분위기를 전국 도심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바로 '라이브사이트'다. 경기 생중계는 물론 거리응원,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라이브사이트 파트너와 함께 지역 대표축제 등과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라이브사이트는 평창, 강릉, 정선 등 올림픽 개최도시뿐 아니라 서울과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자리하는 고정형 라이브사이트, 차량을 활용해 전



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이동형 라이브사이트 등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강릉 올림픽파크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대전 라이브사이트는 겨울철 대표 놀거리인 아이스링크를 설치,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월 25일까지 개최되는 평창 송어축제와 정선 고드름축제 등 지역 대표축제와 연계해 운영한다. 특히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서울 광화문 라이브사이트에서는 첨단 ICT가 융·복합된 특별한 체험이 가능하다. 강릉 올림픽파크에서는 매주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글 오석기, 강원일보 기자 사진 제공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청

유망예술지원
선정작가 쇼케이스전

예술가들의 고민과 성장의 과정을 엿보다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새롭고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려는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플랫폼 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전시 개최를 위한 비용과 전시공간, 그리고 작품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망예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 5인의 쇼케이스전이 마포구 창전동 탈영역우정국에서 2월 4일까지 열린다.



- 1 박천욱 작가의 <Rainbow Direction> 전시 전경.
- 2 최병석 작가의 <살구나무에 불던 바람> 전시 전경.
- 3 2017-2018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작가 쇼케이스전 현장.



5회를 맞이한 ‘유망예술지원사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지원 대상을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망 예술가 중 기존 작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작업 전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좀 더 구체화·차별화했다. 또한 1년이던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예술가들이 창작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작지원금도 지원 기간에 비례해 상향했다.

유망예술지원사업은 과정으로서의 예술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한다. 예술가의 실험과 탐구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완성과 미완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 열린 해석,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을 만들어나간다. 이번 쇼케이스 전시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다.

유연한 사고로 창조한 실험적인 작품들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작가 쇼케이스전에 참여한 5명의 작가는 모두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한 신작을 선보인다. 5명이 한데



모여 내뿜는 새로운 에너지와 그 속에서 제각각 빛을 발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는 탈영역우정국 전관을 활용해 작품의 특색에 따라 각 공간을 연출하고 작품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눈 결과였다.

지하를 채운 박지혜 작가의 작품은 〈표준의 탄생〉(2018)이라는 하나의 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표준의 탄생〉은 박지혜 작가가 우연히 습득한 원고지를 제대로 써‘버리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작업으로 2017년 유망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김혜진 소설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되었다. 서로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두 예술가의 만남은 박지혜 작가의 작업을 더욱 풍성하게 완성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 소설은 박지혜 작가가 그간의 작업 과정에서 파생시켜 온 주제들(신체 · 공간의 제약, 효율성과 직결되는 각종 규칙, 행정의 매뉴얼 등)을 망라하여 한데 엮는 프로젝트로, 동시대 예술가의 삶을 담고 있다. 탈영역우정국 지하층의 독특한 구조를 활용한 박지혜 작가의 설치작품 〈하찮은 속사정〉(2018)은 위 소설의 확장판이다. 소설에 사용된 표현들이 오브제로 대체되어 ‘ㄷ’ 모양의 터널을 돌면서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터널에 설치된 작은 조명은 터널을 돌며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오브제들, 즉 ‘하찮음’들을 비춘다. 1층에 설치된 박천옥, 최병석 작가의 작업은 같은 설치작업임에도 전혀 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박천옥 작가는 사물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일부 절단되었을 때, 경험과 인식에 의지하며 사물의 이어질 부분을 예측하거나 상상한다. 작품 자체의 완벽한 조형성을 탐구해온 작가는 작품이 선행적으로 내용과 의미를 담지 않기를 바라며,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작품의 조형성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쇼케이스 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Rainbow Direction〉(2018)은 그릇에 담기는 어떤 것보다 그릇 모양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의도와 해석에 관한 구구절절함 대신 형상 자체가 주체적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작가의 의도를 전한다.

최병석 작가는 정확한 실체와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장치들을 제작해왔다. 특유의 조형 감각과 손재주를 마음껏 펼쳐 보인 작업들은 자칫 쓸데없는 물건들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깔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기에 비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밝힌다. 이번 쇼케이스 전시에서 선보인 작업 〈살구나무에 불던 바람〉은 마당 구석의 살구나무를 상상하며 시작되었다. 뒷마루에 앉아 위아래로 끄덕끄

덕 움직이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니 살구나무에 부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잡아당기는 힘 혹은 운동 같은 것으로 느껴졌다. 작가는 바람의 형태를 상상하고 움직임을 해석한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우정국 2층의 방을 활용한 금혜원 작가의 작업은 외할머니의 유품인 8권의 노트를 출발점으로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현대사를 아우르며 삼대에 걸친 이야기를 회고한다. 1920년대의 유년시절부터 서술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은 필연적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우리의 조부모 세대가 그러했듯 작가의 할머니는 일제의 지배와 광복, 월남, 6·25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또 그 영향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시대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작가는 할머니의 삶을 통해 지나간 시대를 추적하여 현재에서 과거를 반추하고, 동시에 과거로부터 현재를 발견한다.

우정수 작가는 사람, 단어 등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얻고, 이미지 화하고, 그려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는 “Jesus clam the storm”이란 성경 구절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미지와 내러티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극적인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들에서 예수 머리에 있는 후광을 지우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다양한 군상들을 담은 이미지가 된다. 텍스트로 치자면 “Jesus clam the storm”에서 주인공인 ‘Jesus’가 사라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미지와 내러티브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영상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선정작가 5인의 작업 이야기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반 시민들과 가까이에 서 소통하기 위해 선정작가 개개인의 작업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다.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직접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탈영역우정국에서 연출 및 제작하는 방식으로 완성된 영상은 각각 2분 내외로, 작가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친절한 작품 소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시 기간 동안 작가들의 작업 과정, 방법, 재료 등을 고려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탈영역우정국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며, 관객들은 워크숍과 수집 과정에 참여해 작가와 소통하고, 작업의 생산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글 김지선_서교예술실험센터 사진 서울문화재단



개관 5주년 맞은 시민청(聽)

도심 속 시민을 위한 공간

주인이 오래 비운 집은 낡고 녹슬며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 되고 만다. 시민청에는 2013년 1월 12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935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5,493명이 다녀간 셈이다. 시민들의 집과 같은 공간이 되기 위해 ‘시민이 주인’이라는 기조를 세운 시민청. 구석구석 시민의 손길과 온기가 닿아 비로소 그 빛을 냈다.

시청사 9%의 공간을 시민에게 온전히 내어준 공간, 시민청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경청하는 시민의 장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시민 참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의 필요성으로 인해 비롯되었다. 시민청은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위한 대관도 진행한다.

5살 시민청과 함께한 사람들

시민청의 5살 기념 생일잔치는 시민청을 만들고 시민청과 성장한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5년간의 시민청을 이야기하자면 시민청과 함께한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시민이 직접 시민청 공간을 채워나가도록 하기 위해 선 발한 시민기획단은 총 4개 분과(광장, 소통, 공감, 동행), 5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에서부터 주부, 아랍어 능통자, MD, 강사 등 나이와 직업에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시민기획단은 각자의 경험을 발휘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제 기획에 참여하며, 현장 운영 등 프로그램 전반에 주체로서 활동한다. 이 밖에도 매일 점심시간을 활력으로 채워주는 67개 팀의 시민청예술가, 시민청의 주체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시민청을 안내하는 시민기자단 등이 있다. 올해에도 시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

- 1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청예술가들이 그린 시민청 방문객 500인의 캐리커처 전시.
- 2 오케스트라 연주와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김민지의 협연을 감상할 수 있었던 기념 음악회.
- 3 박지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시민청 토크 콘서트.
- 4 시민청의 개관 5주년을 축하하며 함께한 합창.

하는 제5기 시민기획단, 시민청을 소개하고 알리는 제2기 시민기자단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 오~시민청 생일잔치 둘러보기

개관 5주년을 맞아 오케스트라, 토크 콘서트, 캐리커처 체험 및 전시 등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준비되었다. 특히 1월 13일 행사 당일에는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시민청 운영 발전에 기여한 우수 시민기획단 5명과 시민청예술가 4명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상이 끝난 후에는 시민기획단과 시민청예술가, 시민청운영자 문위원회 등 시민 운영 주체들이 5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시민청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사회를 맡은 박지운 아나운서가 “나에게 시민청이란?”이라는 질문을 하자 시민기획단 손진슬 씨는 “중학교”라고 답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니,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설렘했다. 부모님과 어른들은 중학교에 입학한 나를 아이로 취급하지 않고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그 의견을 반영해줘 처음으로 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시민청에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토론할 때는 설레기도 하고 내 의견을 존중받는 느낌도 든다”라고 설명했다.

토크 콘서트가 마무리되고 지휘자 배종훈이 이끄는 서초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어졌다.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김민지가 협연하여 시민과 함께 시민청의 생일을 축하하는 무대도 펼쳐졌



다. 서초교향악단과 19인조의 한국아카데미소년소녀합창단이 시민과 함께한 합창은 생일잔치의 대미를 장식하며 시민청 곳곳에 울려 퍼졌다. 이 밖에도 시민청예술가 캐리커처 작가들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시민청 방문객 500인의 작품이 이날 완성되어 활짝라운지 벽면에 전시되었다. 시민들이 참여한 의미 있는 캐리커처 작품들은 1월 이후 시민청에 방문하면 받아갈 수 있다.

지난 5년간의 이야기

지난 5년간 시민청에서는 시민들의 수공예 작품을 판매하는 ‘한마음살림장’, 시민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랑방위크숍’,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민과 소통하는 ‘토요일은 청이 좋아’ 등 23개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총 5,332회 개최했다. 또한 하객 100명 이내, 평균 700만원의 비용으로 진행되는 작고 뜻깊은 시민청결혼식을 통해 5년간 166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이 밖에도 동호회 작품 발표회, 토론회, 북 콘서트 등을 위한 공간 대관으로 4,009회의 다양한 시민 활동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시민청 내방객 대상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는 97.2%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도봉구청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민청의 운영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소통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청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강북구 솔밭공원역사에 제2시민청을 조성하여 오는 3월 개관한다.

글 우사랑. 시민청 사진 서울문화재단



성동공유센터

소유 말고 공유

물품, 공간, 재능 등 다양한 공유 관련 정보를 나누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동공유센터가 지난해 11월 15일 문을 열었다. 성동구 행당동 논골사거리 인근에 자리 잡은 연면적 195.23㎡, 지상 3층의 성동공유센터는 2015년 3월 문을 연 은평공유센터에 이어 서울시에 두 번째로 생긴 공유센터이다. 공유센터는 동네 사랑방처럼 주민들끼리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유거점이자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한다.

성동공유센터는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건물답게 좁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지어졌다. 아파트 숲속 언덕길 안쪽에 있어 큰길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게 느껴지는 공간 구조에 놀라게 된다. 고정진 센터장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공간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부지가 워낙 좁아서 공사할 때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아기사기하게 잘 만들어져 만족한다는 후문이다.

빌려 쓰고 나눠주는 공유문화 실천

1층은 물품공유소로, 가끔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 둔 주고 사기에는 아까운 물품들을 빌려준다. 250여 종 700여 개의 공구, 생활용품, 캠핑용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 선반에 전시해놓은 물품들은 직접 만져보면서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대여 기간은 공구와 생활용품은 3일, 캠핑용품은 5일이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요즘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이다 보니 전문가들이 쓰는 공구들도 많이 찾는단다.

2층 공유프로그램실은 대형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 싱크대 등을 갖추고 있어 10여 명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1~2월에는 캘리그래피, 재봉, 코딩과 3D프린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학 기간에 맞춰 초·중등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코딩과 3D프린팅 과정을 열었다.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3D프린터 3대, 재봉틀 6대, 노트북 10대도 구입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해 요리 프로그램도 운



1



2



3

영할 계획이다. 아직은 하루에 한 강좌만 열리기 때문에 수업 시작 전이나 수업이 끝난 후 남은 작업을 해도 될 정도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도 주민 누구나 강사가 되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공유 목적의 모임에 대관도 해준다. 대관료는 2시간에 1만 5,000원이다.

3층으로 올라가면 다채롭게 꾸며진 주민 커뮤니티룸과 공유서가 나온다. 3층이라고는 하지만 층고가 높은 복층구조라 4층까지 있는 셈이다. 공유서가는 주민들로부터 기부받은 700여 권의 책으로 채웠다. 신발을 벗고 공유서가 옆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자그마한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다. 가족이 오붓하게 책을 읽거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 바닥이 차 겨울철에는 1층에서 매트도 빌려준다. 건너편 꼭대기 층에는 회의를 하거나 조용히 일할 수 있는 북 카페와 같은 공간이 별도로 있다. 음료는 팔지 않지만 가지고 와서 마셔도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창문 밖으로 이어진 테라스로 나가면 노란 파라솔 아래 앉아 언덕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모든 공간은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글씨를 연습하면 며느리는 그 옆에서 비즈공예를 하기도 하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과 같이 와서 책을 보고 간다.



- 1 아파트 숲속 언덕길 안쪽에 위치한 성동공유센터.
- 2 다양한 물품을 빌려 쓸 수 있는 1층 물품공유소.
- 3 2층 공유프로그램실에서 재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4 3층은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유서가에서 다락방으로 이어진다.
- 5 주민들로부터 기부받은 책들로 채운 3층 공유서가.

공유와 나눔으로 활기찬 공간

성동공유센터는 3,000여 세대로 구성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고정진 센터장은 성동구의 40개 아파트 단지 대표 모임인 아파트공동체연합회 회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 서울시와 성동구청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물품들은 메모해두었다가 구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품 기부는 계속 받고요. 며칠 전에는 주민이 휠체어를 기부했어요.” 인근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멀리에서도 찾아온다. 대여 담당자는 “처음에는 누가 빌려갈까 반신반의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품을 빌려가고 있어요”라며 벌써 한 뭉치가 된 대여신청서를 보여준다. 실제로 평일 이른 오전 시간임에도 공구를 둘러보고, 프로그램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당분간은 무료로 빌려주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유료화할 예정이다. 유료라 하더라도 구입가 10만 원 이내의 물품은 1,000원 선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된다. 성동구민 외에도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고정진 센터장은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공유와 나눔을 실천하려는 시민들로 센터가 북적일 것 같은 느낌이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을 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문의 전화 02-2282-6550.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성동공유센터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와 <닥터 지바고>

무대 위에 펼쳐지는 러시아 문학의 향연

사상가이자 철학자, 심지어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러시아의 문인 대다수가 방대한 분량과 술한 등장인물, 심오한 주제로 전 세계 독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다행히 친절 한 무대 예술가들은 고전을 손수 잘게 다지고 먹기 좋게 익혀 무대에 올려놓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막을 올린 <안나 카레니나>, 이달 말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하는 <닥터 지바고>는 당대 러시아인의 삶과 고뇌를 진하게 녹여낸 수작들이다. 음악과 춤, 의상과 무대장치까지 화려한 볼거리로 무장한 뮤지컬 장르의 장점까지 더해 좀 더 쉽고 유쾌하게 러시아 고전에 빠져볼 기회를 제공한다.



1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2 뮤지컬 <닥터 지바고> 2012년 초연 당시 무대 모습.

안나의 내면에 집중하다

<안나 카레니나> 1. 10~2. 25,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예술작품으로서 완전무결하다.”(도스토옙스키)

“세계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 소설이다.”(토마스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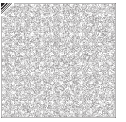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대로 불행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쏟아진 찬사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상류층 여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결혼, 가족 등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사랑, 욕망 등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는 이 소설은 지금까지 영화는 물론 발레와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져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러시아의 유명 뮤지컬 프로덕션인 ‘모스크바 오페레타 시어터’의 대표작으로 세계 초연하는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사랑과 가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안나의 내면에 집중한다. 연상의 남편 카레닌과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꿈과 욕망을 숨긴 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부인으로 살아가는 안나는 젊은 장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마저 남겨둔 채 가정을 떠난다. 그러나 사랑이

인생의 전부가 된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집착하고 그의 사랑이 식었다는 착각 속에 고통받는다. 운명의 열차는 안나를 지옥까지 몰고 간다. 결국 브론스키와의 다툼으로 유리장같이 약해진 영혼에 상처를 입은 안나가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며 막을 내린다.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안나가 브론스키를 처음 만나고 훗날 죽음을 맞이하는 기차역을 비롯해, 소설 속에 생생하게 묘사된 장면들을 얼마나 완성도 높은 무대 문법으로 풀어냈느냐다. 이번 프로덕션에서는 초대형 LED 스크린을 장착한 무대 구조물을 활용해 기차역과 무도회장, 농장, 오페라 극장으로 순식간에 장면을 전환하는 한편, 마지막 장면에는 2.5m 규모의 대형 기차 세트를 등장시켜 소설 속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러시아 현지에서 공수해온 200여 벌의 의상과 소품도 특별한 볼거리다.

비비안 리부터 소피 마르소, 키이라 나이틀리 등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거쳐간 ‘안나’ 역할인 만큼 국내 무대에서도 최고의 여배우들이 안나로 분한다. 정선아가 ‘불꽃같이 행동하는 안나’라면 옥주현은 ‘우아함 뒤에 슬픔을 간직한 안나’다. 브론스키 역에는 이지훈과 민우혁이 더블 캐스팅됐다.



소설로 쓴 시, 6년 만에 돌아오다

<닥터 지바고> 2. 27~5. 7, 샤롯데씨어터

소비에트 리얼리즘 문학이 주류였던 20세기, 러시아 문학의 이단아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소설 <닥터 지바고>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배경으로 의사이자 시인인 유리 지바고의 사랑과 열정을 담은 로맨스 대서사극이다. 본래 20세기 초 러시아인들의 삶과 격동의 사회상을 다루는 대하소설이지만 뮤지컬 <닥터 지바고>는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녀, 지바고와 라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집중했다.

이 작품의 백미는 파스테르나크의 시적 분신인 지바고가 남긴 유고시를 바탕으로 탄생한 넘버들이다. 러시아 문학 전문가이자 서평가인 이현우 씨(필명 로자)는 <닥터 지바고>가 '소설로 쓴 시'이며 지바고는 소설 속 주인공이라기보다 파스테르나크의 서정적 분신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관점에서 소설 끄트머리 부록처럼 더해진 지바고의 유작시들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작

곡가 루시 사이먼은 유작시에 아름다운 선율을 덧입혀 시대적 혼란, 지바고와 라라의 애절한 사랑을 유려하게 풀어낸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작품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무대다. 2012년 초연 당시, 광활한 러시아 대륙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를 4.4도 경사로 기울이고 기하학적 무늬의 패턴으로 장식했는데, 무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근감을 드러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240여 벌의 의상, 30여 명의 등장인물을 비추는 450여 대의 고정 조명, 80여 대의 LED 장치, 72대의 무빙라이트, 작품의 대미인 설원을 장식하기 위해 설치된 20대의 스노 머신까지 '블록버스터급 뮤지컬'에 맞는 무대장치와 소품으로 화제를 모은다.

초연 당시 홍광호, 조승우 등이 분했던 주인공 '닥터 지바고'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관록을 자랑하는 배우 류정환과 박은태가 맡았다. 또 지바고의 뮤즈이자 강인한 여성 라라 역에는 조정은과 전미도가 열연한다.

글 서은영, 서울경제신문 기자 사진 제공 서경스타, 오디뮤지컬컴퍼니





전시 <마리 로랑생전-색채의 황홀>과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독창적 세계로 자신을 증명하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은 예술가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숙명이다. 예술에 있어서 ‘독창성’은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예술가의 삶은 외롭고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인생을 산화시켜 만든 작품들은 세기에 걸쳐 명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낭만주의의 끝자락, 당대 남성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이자 여류 예술가로서 독창적인 색채의 그림을 선보인 화가 마리 로랑생, 그리고 20세기 중반의 모더니즘 시대, 조각계에 한 획을 그은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유독 추운 울겨울 국내 관람객을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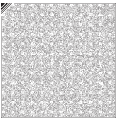
벨 에포크 시대의 뮤즈

<마리 로랑생전-색채의 황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7. 12. 9~3. 11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20세기 초까지, 평화와 번영이 지속된 벨 에포크 시대. 마르크 샤갈에 비견되는 몽환적인 색채로 파리의 여성들을 담아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한 여성화가 마리 로랑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몽마르트의 뮤즈’이자 아이콘이었다. 입체파와 야수파가 주류였던 100여 년 전의 유럽 화단, 예술마저 남성 위주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그의 화풍은 더욱 빛났다.

천재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연인으로 그의 시 <미라보 다리>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진 로랑생은 1, 2차 세계대전의 풍랑 속에서 영화나 연극의 주인공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여성화가가 드물던 당시 마리 로랑생은 미술 교육기관인 아카데미 앙베르에서 입체파의 창시자로 불리는 조르주 브라크에게 재능을 인정받으며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파블로 피카소의 작업실이자 세계 곳곳에서 파리로 몰려든 젊은 예술가들의 아지트이기도 했던 ‘셰탁션’을 드나들며 기욤 아폴리네르, 막스 자코브, 앙리 루소



등과 어울리는 한편, 본격적으로 작품 세계를 일궈 ‘입체파의 소녀’로 불린다. 연인 아폴리네르와 헤어진 후 독일인 남작과 결혼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파국을 맞이한 그는 이후의 생을 예술에 바친다. 192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초상화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70대에 이르러서도 시집을 출간하고 그림을 그렸다. 황홀한 파스텔 톤에 윤곽을 뭉뚱그린 듯한 그의 화풍은 세상의 고통을 감싸 안으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명작가였던 20대부터 73세의 나이로 죽기 전까지 그린 유화 70여 점과 석판화, 수채화, 사진과 일러스트 등 주요 작품 16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세계 조각사에 한 획을 긋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7. 12. 21~4. 15

양상한 뼈대만 남은 인체 조각상. 188cm 높이의 이 조각상을 멀리서 보면 마치 기아에 허덕이고 굶주린 듯한 사람의 형상처럼 보인다. 칼바람이 스치면서 남아 있는 온기마저도 잃어버린 듯한 마른 걸음이 냉랭한 우리의 일상을 대변한다. 20세기 미술의 상징이 된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이다. 세계대전의 화마를 지켜보며 극한에 놓인 인간의 고독을 형상화했다는 이 작품은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자코메티의 작품을 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세파에

쓸려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 같은 형체이지만 그럼에도 앞을 향해 걸어 나가야만 하는 인간의 고된 운명을 표현한 이 조각은 그 눈빛이 공허하기까지 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20세기를 상징하는 예술가이자 조각가로 현대미술과 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예술가 중의 예술가’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모더니즘 정신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남겼다. 현대미술사에서 그의 작품 하나 하나는 불후의 명작으로 유명하다. 생명의 핵심을 인간의 ‘시선’이라고 생각한 자코메티는 두상 작업에 평생을 바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는 작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고향 스위스 스타파에 있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시작해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 1960년대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예술적 성취 과정을 모두 보여준다. 특히 이번 서울 전시에서는 직전에 열렸던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과 중국 상하이 유즈미술관의 전시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대표작 <걸어가는 사람>의 석고 원본이 특별히 아시아 최초로 전시된다. 또 그가 죽기 직전 만든 <로타르 좌상> 및 <디에고 상>, <아네트 상> 등 주요 작품들도 선보인다. 조각 외에도 마지막 페인팅 작품인 <자크 뒤팡의 초상화>를 포함한 인물 드로잉, 페인팅, 사진, 원고 및 기타 보관 자료가 함께 전시된다.

글 박지현_파이낸셜뉴스 기자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코바나컨텐츠



- 1 마리 로랑생 <세 명의 젊은 여인들>, 캔버스에 유채, 1953.
- 2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전시장 전경.

책 <포르투갈의 높은 산>과 <아버지의 유산>

죽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살아 있는 사람의 삶도 달라진다. 죽음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문화권이나 종교의 차이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조금씩 혹은 아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면에 깃든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두 같을지 모른다. 여기에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은 하나는 픽션이고 또 하나는 팩트를 바탕으로 한 진지한 에세이다. 지어낸 이야기이건 사실이건 간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일견 다른 듯하지만 기실 그 기저는 같은 빛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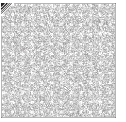
모든 죽음은 '신의 살해'

<포르투갈의 높은 산> 안 마텔 지음, 공경희 옮김, 작가정신

<파이 이야기>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캐나다 작가 안 마텔의 신작 <포르투갈의 높은 산>은 세 남자가 극심한 상실을 견디며 대처하는 모습들이 3부작으로 이어진다.

포르투갈 동북부 높은 지대의 한 마을에서는 장례에 참여한 모든 조문객들이 슬픔의 표현으로 뒤로 걷는다. 뒤로 걷는 행위를 이 지역에 퍼뜨린 최초의 사내는 애초에 '애도'의 의미로 뒤로 걸은 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가 뒤로 걷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신을 등지고 뒤로 걷는 것이,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발하면서 걷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사내는 일주일 사이에 사랑하는 이들을 연거푸 잃었다. 아들은 월요일, 아내는 목요일, 아버지는 일요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 사내는 "신은 내 사랑하는 이들에 한 짓의 대가를

특특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고문서 속 신부의 말을 가슴에 새긴다. 2부에서는 남편의 시체를 트렁크에 넣어온 아내가 의사에게 해부를 부탁한다. 그들 부부는 일찍이 어렵사리 얻은 금쪽같은 아이를 사고로 잃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 해부한 남편의 심장에서는 침팬지 한 마리와 새끼 곰이 나왔다. 아내는 옷을 벗고 침팬지와 새끼 곰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누워 그대로 봉합해달라고 부탁한다. 그 의사 또한 아내의 죽음을 겪은 사내였다. 의사에게 아내는 환영으로 찾아와 말했다. "슬픈 사실은 의사들이 뭐라고 하던 자연사는 없다는 점이에요. 모든 죽음은 살해로, 사랑하는 이를 부당하게 빼앗긴 것으로 느껴지죠.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의 살해를 맞닥뜨리지요. 바로 자신의 죽음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피해자인 살해 미스터리에서 살아요."



죽음은 삶의 연장이다

<아버지의 유산> 필립 로스 지음, 정영목 옮김, 문학동네

모든 죽음은 그것이 자연사든 아니든 ‘신의 살해’라고 받아들이는 안 마텔과 달리 미국의 원로작가 필립 로스는 에세이 <아버지의 유산>에서 죽음을 진지한 삶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는다.

미국으로 이민 온 가난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필립 로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냥 여느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에게서 미워할 모든 것을 갖추고 사랑할 모든 것을 갖춘 바로 그런 아버지”라고 회고한다. 자신의 기준을 강박적으로 모든 이에게 적용하는, “자신의 극기심과 강철 같은 자기 규율 능력이 특별한 것이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자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이지만 “빈곤 상태에서 성장해 약 4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면서 가족에게 소박하지만 안정된 가정생활을 제공했고 이목을 끄는 소비, 허세, 사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 또한 그의 아버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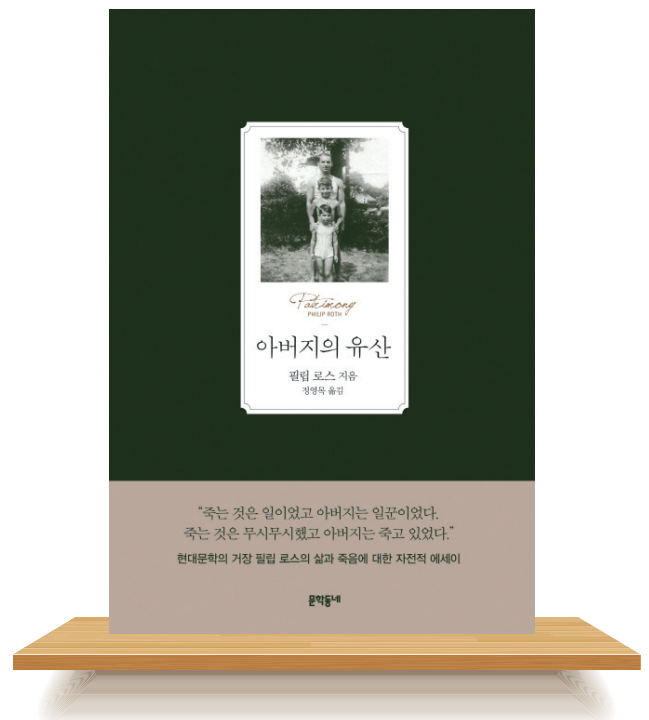
그런 아버지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필립 로스는 평범한 이의 죽음을 다룬 <에브리맨>에서 “노년은 전투가 아니라 대화살”이라고 썼거니와 이 에세이에는 “늙는 건 소풍이 아니다”라고 써넣었다. 아버지와 얽힌 가족사, 아버지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 유대인으로 겪는 차별 같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삽입하다가 필립 로스는 특유의 냉정하고 강인한 문체로 아버지의 죽음을 직면한다. “아버지는 3주 후에 죽었다. 1989년 12월 24일 자정 직전에 시작되어 다음날 정오 직후 끝난 12시간의 시련 동안 아버지는 평생에 걸친 고집스러운 끈기를 멋지게 분출하며, 마지막으로 과시하며 숨 한 번 한 번을 위해 싸웠다. 볼 만한 광경이었다.”

“볼 만한 광경이었다”는 서술은 방관자의 자세라기보다 죽음과 별인 아버지의 싸움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작성해두었던 생명 연장 포기 각서인 ‘사망 선택 유언’을 실천한다. 이미 “그때쯤 아버지는 들것 위에서 조 루이스와 100라운드는 싸운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진술한다. “죽는 것은 일이었고 아버지는 일꾼이었으며, 죽는 것은 무시무시했고 아버지는 죽고 있었다”고.

모든 죽음은 자연사조차 ‘신의 살해’라고 단언한 여인, 십자고상에 매달린 존재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유인원이라고 울부짖는 사내, 안 마텔이 만들어낸 소설 속 이런 인물들도 결국 말미에는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절규한다. 죽음과 대면한 인간의 절대 고통을 극복할 대안이 있을까. 필립 로스의 저 차분하고 냉철한 태도도 결국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마음자리일 것이다.

글 조용호 소설가. 소설집 <베니스로 가는 마지막 열차>, 장편소설 <기타여 네가 말해다오>, 산문집 <꽃에게 길을 묻다> 등을 펴냈다.

사진 제공 작가정신, 문학동네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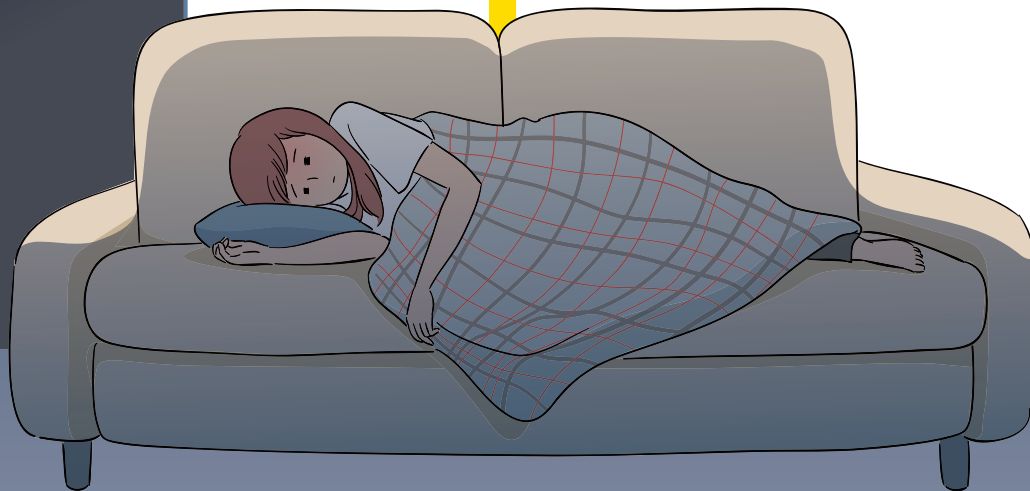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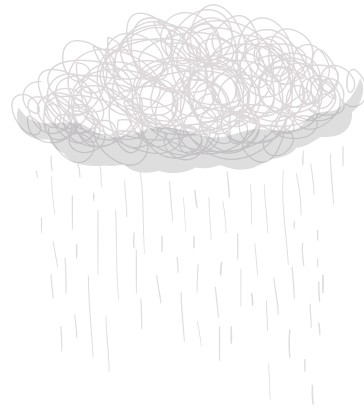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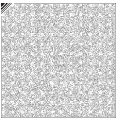
사람을 사귀는 일이 어렵고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친구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해요.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말라고. 죽을 용기는 없는데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저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일할 때 행복하지만 일만 하고 살수는 없고, 취미로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듣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금방 무너지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너무 힘들어요. 다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번 슬퍼지기 시작하면 거의 매일 눈물이 나오. 다 내려놓고 싶어요. 사람 사귀는 것도 어렵고 무서워요.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밥맛도 없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는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가 아니기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기에 제 견해는 해답이 아닌 하나의 의견으로 읽어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 코너 이름처럼 예술적 상담입니다.





질문의 방향을 돌려보세요

어떤 질문이 어느 한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며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더 깊은 슬픔의 늪으로 끌어당기며 우울을 증폭시킨다면 과감히 질문의 방향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모든 예술의 출발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예술가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끝없이 질문하는 존재이며 긴 시간 인내하면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성찰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낳은 깨달음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죠. 우리의 삶도 예술의 생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요. 내가 겪은 경험과 성찰은 나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만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니까요. 이것이 곧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상실의 고민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말해준 것이 외람되지만 반가웠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는 타인과의 연결을 쉽게 해주지만 단절 또한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일한 존재를 가볍게 여기며 꼭 네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공동체가 아닌 홀로 살아가는 삶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사연을 보내신 분은 삶은 결코 홀로 살아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온몸으로 양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죠? 나를 괴롭히는 질문을 붙잡고 고민하며 아파하는, 어쩌면 엉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을 칭찬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나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말이죠.

질문하는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그다음에는 '나는 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할까? 나는 왜 매번 친구들이 떠나가고 홀로 남겨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멈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완벽한 친구 혹은 그런 애인을 만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나를 참아주는 존재는 흔치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상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대도 부족한 인격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에 서로 멀어지고 끝장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깊게 내뿔어보세요. 편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요.

나에게서 너로, 안에서 밖으로 시선을 옮겨보세요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누가 내 친구일까?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에서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까?'로요. 나에게서 너로, 안에서 밖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계속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의 시선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욕망보다는 내 욕망이 늘 우선이죠. 내 말을 더 많이 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질문을 바꾸고 상대방을 관찰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도와주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곁에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의 온도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관찰은 침묵하게 하며 귀 기울이게 합니다. 선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의 마음을 더 깊게 들여다보게 하죠. 게다가 타인을 관찰하다 보면 도리어 나를 보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단점을 가진 누군가의 모습에서 반복적으로 관계가 틀어진 원인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타인은 내가 볼 수 없는 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귀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섬세한 감정을 가진 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참지 못하고 터트린 분노와 폭언이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관찰을 통해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함께 있을 때 감정이 즐거워지면 상대는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람 사귀는 게 무섭지 않고 즐거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답변 최성문_ 소설가, 시각예술가, 문화기획자. 지은 책으로 <오늘을 부탁해> 등이 있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역사가 산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호텔로 통하는 웨스틴 조선호텔은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최초의 프랑식 레스토랑, 최초의 뷔페 레스토랑 등 서구 문화의 근원지이기도 했던 웨스틴조선호텔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들여다봅니다.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자 최초의 근대식 호텔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10월 10일 문을 연 이 호텔은 올해로 개관 104주년을 맞습니다. 독일 건축회사 게오 텔란트가 설계하고, 조선철도국이 설립한 이곳은 서울 중심부에 북유럽 양식의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광복 후 미군이 이 호텔을 운영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교통부가 인수해 정부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집무실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6·25전쟁 중에는 문을 닫았으며 1951년 4월 다시 미군이 1군단 중앙정양처로 사용하다가 이듬해부터는 미8군 고급장교의 숙소가 됐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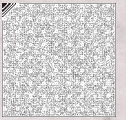
웅장한 응접실을 비롯해 다이닝룸, 귀빈 접대실, 콘서트홀 등을 갖춘 이 호텔에 처음으로 프랑식 레스토랑이 들어섰고, 뷔페도 처음 소개됐습니다. 1953년에는 마릴린 먼로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 호텔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화재 이후 빠르게 발전한 호텔

1958년 이 호텔에 화재가 났습니다. <사진>은 그해 8월 31일 호텔 4층에서 난 불을 소방관들이 끄는 장면입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경유 난로 연통 과열이 화재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화재를 계기로 교통부가 미군에 이 호텔을 다시 명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군에 징발당한 이 호텔을 여러 차례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미군 측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당시 교통부는 이 호텔을 총리 관저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고, 관광호텔로 유지했다고 하네요.

‘집에 불이 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 이 호텔도 화재 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1964년 태평양아시아지역관광협회(PATA) 총회 워크숍을 유치했고, 1967년에는 호레이쇼 험프리 미국 부통령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1970년 현재 모습인 20층의 현대식 건물로 개축했습니다. 1979년 미국 웨스틴호텔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어 ‘웨스틴조선호텔’로 새로 태어났고, 1995년에는 신세계그룹이 웨스틴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하얀 테두리로 둘러싸인 201호가 VIP룸이었습니다. 이 방에 처음 묵은 한국인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며,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도 이 방에 묵었습니다. 이 대통령 다음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박사가 이 방의 주인이 됐고, 험프리 부통령도 이 방에 투숙했습니다.



<사진> 1958년 호텔 화재 모습.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

조선호텔 터는 조선 태종이 둘째 딸인 경정공주를 평양부원군 조대림에게 강가(降嫁, 왕족의 딸이 신하의 집으로 시집가는 것)시킨 후 그들의 보금자리를 지어준 곳입니다. 이 저택을 '소공주택'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소공동이라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호텔 자리에는 대한제국 때 하늘에 제사 지내는 환구단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민족 혼을 끊기 위해 1913년 환구단을 허물고, 이 호텔의 전신인 조선철도호텔을 지었습니다. 또 환구단 정문과 전각 등을 곳곳에 흩어놓았다고 합니다. 2007년 우이동의 한 호텔에서 환구단 정

문이 발견돼 원위치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복원됐습니다. 현재 환구단 부속건물인 황궁우(신위를 모신 곳)가 남아 있습니다. 황궁우 천장에는 대한제국 황제를 상징하는 용 그림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황궁우 앞에 있던 일본식 석등과 나무, 잔디정원 등을 걷어내고 전통형으로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구단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소설가 한창훈의 스무 살 서울

오래전 모래내시장

소설가 한창훈이 스무 살이었던 때, 난생 처음 올라온 서울에서 지낸 곳은 남가좌동 모래내시장이었다. 친척 아주머니의 집에서 묵으며 종로에 있는 학원을 오갔던 그 시간 동안, 시장 주변에서 소시민의 삶을 이어가는 다양한 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얼굴은 잊었지만, 그 시간을 추억하며 지금도 모래내시장을 기웃거리곤 한다.

1-3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살았던 모래내시장. 요즘도 자주 찾는 곳이지만 예전에 머물던 그 집을 찾을 수가 없다.



복닥복닥 남가좌동 사람들

1982년 1월. 역사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커다란 일이 생겼다.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은 것이다. 종로에 있는 학원 비슷한 곳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저 남쪽 여수에서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다.

배웅 나온 친척 아주머니는 나를 데리고 낡고 어두운 시내버스에 타더니 한참 뒤 남가좌동 모래내시장에서 내렸다. 시장을 끝까지 가로지른 다음 기다란 골목을 파고들었고 종내는 골목인지 복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길쭉한 공간의 끝, 어둑어둑한 단칸방에 도착했다. 친척 아주머니는 라면을 끓여주었고 식은 밥도 퍼왔다. 그게 서울에서의 첫날이었다.

방이 이어져 있던 그곳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즐지어 살고 있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곳이 복도인지 골목인지 그들도 잘 몰랐다. 나는 학원 비슷한 곳에서 무언가를 배운 다음 탑골공원과 인사동 거리, 세운상가 따위를 싸돌아다니다가 늘 저녁시간에 맞춰 돌아왔다.

문제는 친척 아주머니가 춤바람이 났다는 것이었다.(남편은 무슨 일로 지방에 가 있었다.) 그거야 그녀 스스로의 문제니까 상관없다 쳐도, 내가 도착하면 여섯 살짜리 아들놈만 우두커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 진짜 문제는 아주머니가 카바레에 가면서 옆방 처녀에게 아들과 나를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밥 먹을 때 그 처녀가 찾아와 앞에 앉아 있었다는 소리다. 그 시절엔



그런 풍경이 드물지 않았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을 얻어먹을 수 있었으니까. 이름이 뭐냐, 여섯 살짜리 아이하고는 어떤 관계냐, 서울엔 왜 왔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오던 그녀는 밥상을 물린 다음에도 가지 않았고 나도 비슷하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야기는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소주를 사와 마시는 지경까지 가곤 했다. 그녀는 고향이 충남이었고 나보다 한 살 많은 재봉사였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의 춤바람은 이력이 높았다. 자주 '출정'했다는 소리이다. 그것은 옆방 처녀가 그 횃수만큼 내 앞에 앉아 있었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그녀의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별다른 일이 없었으니까. 훗날 아주머니는 옆방 처녀와 어떻게 해보라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둘이 연애를 걸면 자신의 춤바람이 묻히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막 스무 살이었고 카바레에 대한 인식이 몹시 좋지 않았다. 모든 탈선과 가정 파괴의 원흉이 그거라고 <선데이서울>과 <주간경향>에 빠지지 않고 나올 때였다. 그래서 밤늦게 돌아온 친척 아주머니를 앉혀두고 취한 주제에 되도 않게 잔소리를 해보기도 했는

데 그래봤자 하루 정도 쉰 다음 그녀는 또 나갔다.

한 번은 낮 시간에 곱게 생긴 새댁이 갓난아이를 안고 놀러 왔다. 두 여인네는 대낮인데도 나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들어보니 새댁은 카바레 동기였고 춤바람이 들통 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맡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애나 본다고 나에게 하소연했다.

그 세계에도 우정은 존재했다. 아주머니가 남자 역할을 맡아 둘이서 지루박을 한 번 '땡긴' 것이다. 아이를 받아 안고 있던 나는 며칠 전 잔소리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멍하니 그 춤을 바라보았다. 춤이라는 게 나름 법도가 있으며 제법 맵시까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소증(素症)환자 병아리라도 쫓아다니면 좀 낫다'는 말대로 새댁은 어느 정도 해소된 얼굴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 속의 그 얼굴

내가 기억하는 얼굴은 주인집 며느리이다. 재봉사 처녀의 옆방은 제법 컸는데 주인 아들이 따로 쓰고 있었다. 주인집은 내부에서 철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2층이었다. 아들은 요새 기준으로 하면 '인간 말종 금수저'였다. 부모 돈 믿고 아무 일도 안 했다. 술 마시고 화투 치느라 통행금지가 끝나는 오전 4시 이후에 들어오는 게 일과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2층에서 내려와 밥 먹으라고 남편을 깨웠다. 조금 뒤 듣기에 민망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들은 담배를 문 채 2층으로 올라갔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쫓아 내려와 며느리에게 한바탕 퍼부어댔다. 밥상 차려 놓고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고. 무슨 상황인지 다들 아실 것이다. 요지는, 그 며느리는 특하면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는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망한 소리가 길지 않았다는 것이다.

며칠 뒤 며느리는 나에게 나이와 고향을 물었고, 제법 오랫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은 고향이 경상도이며 전라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내가 제법 닮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헤어진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그 남자를 찬 쪼갬을 지금 받고 있다고 말했다.(전라도 남자의 가난, 지금 시댁의 재산 따위가 말 사이에 나왔다.) 그녀의 한탄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나는 지금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지내고 있다. 모래내시장이 가까워 자주 가곤 한다. 얼마 전에는 고들빼기김치를 사왔다. 매번 골목마다 기웃거리보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그 집은 찾지 못했다.

글·사진 한창훈, 소설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광주는 그를 기다린다

서양 선교사 사택을 고쳐 만든 광주 양림동의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는 광주 여행자들 사이에 인기가 좋다. 대표적인 게스트하우스 마니아로 꼽히는 문재인 대통령도 2번이나 이용했던 곳이다. 이곳에 며칠 묵으며 광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산책 삼아 간 곳 중 하나다.



1



2

일요일인데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관객이 적었다. 오직 어린 이문화원만 분주했다. 문화창조원이나 문화정보원에는 적막이 흘렀다. 문화창조원의 전시는 거하고 문화정보원의 아카이빙은 대단했지만 관객 수는 직원 수보다 적었다. 대한민국에서 전시 예산이 가장 많은 전시관 중 하나고 국내 최고의 멀티미디어 아카이빙이 있는 곳인데 너무나 한산했다.

예술의전당처럼 블록버스터 전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시설을 만들어 이런 전시를 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니 안타까웠다. 그런데 전시를 좀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전시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열린 전시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큐레이터가 아니라 바이어를 고용한 것인가? 개관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자체 전시 역량을 아직도 키우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홀대받은 이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이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직속기관이다. 문체부 관료들이 상층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런 구조는 문화예술공간의 운영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가 작업 간섭이, 결과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간섭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결과물도 초라했다.

기가 찬 대목은 문체부 방선규 직무대리가 아직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책임자라는 사실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 적폐의 상징적 인물이다.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는 한직으로 밀려나듯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무대리를 맡았다. 그것은 오월광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왜 박근혜 정부는 것처럼 물의를 일으킨 인물을 내려 보냈을까? 1조원 가까운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연간 600억~800억 원의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대규모 문화예술기관에 왜 그토록 소홀했을까? 그 답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노무현의 잔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오월광주는 노무현을 굳게 신뢰했던 만큼 박근혜를 불신했다.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그래야 예산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예술기관 운영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돈이 목적으로 한 것이 '그럴듯한 보여주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문화 중심도시 광주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광주가 없다.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만든 곳인데 광주가 빠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월광주는 광주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공간만 제대로 활성화한다면 광주를 담지 않아도, 지역 작가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그렇더라도 지역 작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기획자는 두라고 부탁하고 싶다.) 문제는 광주 아닌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보여주기 말고는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다. 엄청

난 예산을 집행해 아티스트들에 대한 복지 말고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구원투수로 오려다 좌초되었다. 지역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오월광주를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 그들이 반대 한 논리가 합당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문체부는 논란을 피하는 데 급급했다. 결국 황지우는 날아오지 못하고 방선규는 자리를 뜨지 않고 아직 거기 앉아 있다.

묻고 싶다. 문재인은 어디에 있는가? 도종환은 어디에 있는가? 방선규는 왜 아직 거기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다. 다시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에 한 번 들러달라고, 그래서 광주의 문화예술인들과 벽난로 앞에서 밤샘 토론을 해달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에 굳은 꿈을 실현할 방도를 찾아보라고.

글 고재열_ 시사IN 편집기획팀장 사진 제공 씨네21

1,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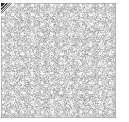


고악기 연주의 매력

고전의 본질을 전하다

올해 열릴 클래식 공연을 살펴보면 '고(古)악기' 연주 단체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4월에는 세계 정상급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가 고악기 연주단 체인 라 체트라 바로크오케스트라와 공연하고(4월 17일, LG아트센터), 비발디 <사계> 음반으로 돌풍을 일으킨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오 비온디와 에우로파 갈란테가 5월에 내한할 예정이며(5월 15일, 롯데콘서트홀),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연주를 맡은 프라이부르크 바로크오케스트라의 공연(7월 6~7일, 롯데콘서트홀) 역시 기대된다. 그 밖에 일본 고음악계의 중심인물인 스즈키 마사야키의 하프시코드 독주회(7월 26일, 금호아트홀), 세계적인 하프시코드 주자 피에르 앙타이의 독주회(9월 20일, 금호아트홀) 역시 놓칠 수 없다. 이처럼 주목할 만한 고악기 공연들을 앞두고, 고악기의 매력과 고악기 연주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날의 악기와 고악기의 차이점

아마도 클래식 공연에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 ‘고악기 연주’라는 말은 매우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오늘날 클래식 공연 무대에서 연주되는 악기들은 거의 모두 예전에 만들어진 악기, 즉 고악기가 아닌가? 바이올린이 발명된 것은 16세기이고 피아노가 발명된 것은 17세기 말이므로 두 악기 모두 오래됐다는 점에서 ‘고악기’이다. 그러나 오늘날 연주되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모두 발명된 시점의 소리와 모양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개량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현대적으로 개량된 악기로, 현악기 줄의 재질이나 활의 모양, 피아노 건반의 수와 페달 등은 개량되지 않은 고악기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연주되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모차르트 시대와는 다른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대적인 바이올린에는 강철선이 걸려 있고 바이올린 목은 뒤로 젖혀져 밀도 높은 소리를 만들어내며, 활털의 탄력은 나사를 이용해 팽팽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 모차르트 시대의 바이올린 줄은 양의 창자로 만들어진 거트현이었고 활 모양도 지금보다 더 구부러졌으며, 기준음 역시 지금보다 반음 정도 낮았다.

고악기 연주의 선구자들

아마도 모차르트가 살아 돌아와 현대의 콘서트홀에서 연주되는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는다면 크게 놀랄 것이다. 더 크고 높은 소리,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소리에 귀를 막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이런 문제에 주목한 음악가들이 있었으니, 20세기 중반 몇몇 음악가들은 17세기나 18세기의 음악작품들은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고악기로 연주해야 더욱 정확하게 그 작품의 본질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다.

1968년, 지휘자이자 첼리스트인 아르농쿠르는 독일의 레코드사를 통해 바흐의 미사 b단조를 고악기로 연주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바흐 생전에 사용했던 악기들과 그 당시 연주 관습에 따라 새롭게 해석했고, 이후 ‘아르농쿠르’라는 이름은 곧바로 ‘고음악 연주’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존 엘리엇 가디너가 이끄는 혁명과 낭만의 오케스트라는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고악기 연주로 녹음해 돌풍을 일으켰고,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오 비온디와 그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가 비발디의 <사계>를 활기찬 고악기 연주로 선보이며 큰 인기를 모았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랑받은 류트와 하프시코드

이처럼 바이올린이나 첼로, 피아노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악기들을 개량되지 않은 상태로 연주하는 고악기 연주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오늘날 거의 연주되지 않는 옛 악기들을 발굴해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류트와 하프시코드가 대표적이다.

그중 류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명된 악기로, 기타와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겼다. 류트는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인기 악기로, 오늘날 어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배우듯 르네상스 시대에는 류트를 배웠다고 한다. 류트는 작은 계란형의 몸통과 프렛(손가락을 짚는 지판에 표시된 구분선)이 붙은 긴 목으로 이루어졌고, 그 종류도 다양해서 작은 크기의 류트뿐 아니라 ‘테오르보’라 불리는 큰 류트도 있다. 간혹 고악기 오케스트라의 공연에서 커다란 테오르보를 볼 수 있다.

하프시코드는 15세기 초반에 발명되었으니 류트만큼 오래된 악기는 아니지만, 이 악기 역시 일반적인 음악회에서는 보기 힘들다. 피아노가 인기를 얻기 전까지 보편적으로 연주되었던 건반악기인 하프시코드는 ‘첼발로’나 ‘클라브생’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맑고 섬세한 울림은 귀족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실제로 이 악기는 귀족들의 저택에서 연주되었던 ‘귀족의 악기’였고, 그 귀족적인 이미지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군들은 하프시코드를 불태웠다고 한다. 이후 피아노가 중산층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프시코드는 인기를 잃어갔지만, 오늘날 고악기 연주회에서 하프시코드는 매우 중요하며 음악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글 최은규_ 서울대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부수석 및 기획홍보팀장을 역임했다. 월간 객석,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음악평론가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부천필 등에서 클래식 음악을 강의하고 있다.





성공회성당과 세실극장

고요함 가운데의
강인함

영화 <1987>이 화제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이 통하던,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과거로 다가온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작가는 “21세기의 종묘”는 종로5가의 한국기독교교회관, 정동 성공회성당, 그리고 명동성당”이라고 말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된 종교기관들, 그 가운데 덕수궁과 서울시의회 사이에서 100여 년의 시간을 고요히 견딘 성공회성당이 있다. 붉은 지붕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소박하고도 단아한 건물이 품은 100년의 시간.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보자.

19세기 말 변화의 중심, 정동

1882년 외국인들의 한성부 내 거주가 허가된 이후, 정동 일대에는 서양 각국의 공사관이 자리 잡았다. 지금의 정동길은 ‘공사관 거리’(Legation Street)라고 불릴 정도로 길을 따라 공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공사관 이외에도 배재학당, 이화학당, 보구여관, 시병원, 정동교회 등 서양인들이 설립한 학교와 병원, 교회 등이 자리 잡았다. 또한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서양 잡화를 파는 잡화점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 들어섰다. 1880년대 중후반 공사관을 비롯한 서양식 건축물들이 정동에 등장하며 단층한옥이 대부분이었던 서울의 풍광은 역동적으로 변해갔다.

지금도 정동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배재학당, 정동교회, 이화여고, 신아빌딩과 같은 붉은 벽돌의 서양식 건축물들이 눈에 띈다. 19세기 말 지어진 공사관들은 현재 대부분 사라졌으나, 러시아 공사관의 탑과 덕수궁 북쪽 언덕 숲속의 영국 공사관은 여전히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 있다.

성공회성당과 그 주변

정동길 주변으로는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활동한 교육·종교 시설들이 자리 잡았고, 덕수궁 북쪽으로는 영국 공사관과 영국 국교인 성공회성당이 자리 잡았다. 정동 4번지에 영국 공사관이 지어진 건 1884년, 성공회성당의 전신인 장림성당이 정동 3번지에 들어선 것은 1890년의 일이었다. 장림성당이 이곳에 세워지며 공사관과 성당 사

- 1 1926년 신축된 이후, 1996년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성공회성당.
- 2 사제관과 뒤편의 수녀원. 사제관 앞에는 6월항쟁 기념 표지석이 있다.
- 3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배치된 단순한 매스의 세실극장.
- 4 세실극장의 입구.



이에는 여학생 기숙사와 남학생 기숙사가 각각 1913년, 1914년, 붉은 벽돌 벽 위에 한옥 지붕을 올린 절충식 한옥으로 지어졌고, 이는 현재 성가수녀원 및 사제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붉은 벽돌에 원형 아치를 사용한 단아한 성공회성당(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건물을 지은 건 1926년의 일이었다. 하늘로 높게 솟아오르는 고딕 성당 양식이 아닌, 한국식이 절충된 로마네스크 성당 양식은 성공회성당의 특징이다. 다른 성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아하고 소박하게 지어졌지만, 종탑에 오르면 덕수궁을 비롯한 서울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성공회성당은 신축 당시 일대의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내 주변에 높은 탑을 가진 부민관(1934년 준공, 현재의 서울시의회), 조선체신사업회관(1937년 건립, 2015년 철거된 남대문 국세청 별관), 조선일보사(1934년 준공, 현재는 철거) 등이 들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더 높은 대형 업무 빌딩들이 들어섬에 따라 성공회성당은 덕수궁, 영국 공사관 등과 함께 정동 내부의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국전쟁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세실극장

성공회성당의 앱스(apse, 기독교의 교회당에서 밖으로 돌출한 반원형의 내진부) 부분 아래에는 총탄 자국이 있다. 또한 사제관 앞에는 6월항쟁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있다. 종교 건축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흔적들은 성당이 지나온 시간들을 보여준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신부와 수녀, 성도들의 피랍과 순교 등이 잇따랐고, 퇴각하던 인민군들이 성당에 기관총을 난사하여 앱스 외벽에 총탄을 남긴 것이다. 피랍되었던 세실 쿠퍼(구세실) 주교는 전쟁 이후 돌아왔고, 성당은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1976년에는 세실 쿠퍼를 기념하기 위한 세실극장이 지어졌다. 건축가 김중업의 설계로 1976년 준공된 이 건물은 연극인회관으로 사용되었으며, 대한민국 연극제가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 연극의 중심지였다. 연한 회갈색 벽돌로 덮인 세실극장은 이탈리아 도시에서 볼 법한 성공회성당을 주인공으로 두고, 그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성공회성당의 배경이 되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대지에 조용히 대응하듯 배치된, 세실극장의 단순한 매스는 지나가는 이들을 계단으로 유인하여 안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성당의 나지막한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렸고, 이 종소리와 함께 도로를 메운 차들은 경적을 울려댔다. 6월항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6월항쟁을 이끌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본부 인사들은 세실극장의 지하 레스토랑에 숨어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젊은이들을 품어주었던 성당과 극장은 지금도 고요히 그 자리에 서 있다. 2015년 남대문 국세청 별관의 철거 이후 성당은 대로변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덕수궁과 영국 대사관 사이의 길이 개방됨에 따라 이 주변은 좀 더 친숙하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세실극장은 운영난으로 인해 2018년 1월 문을 닫았다. 세실극장의 폐관은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지였으며,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던 이곳의 시간과 의미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세실극장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을까?

글·사진 이연경.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전공으로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성부 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대한 박사논문으로 제6회 심원건축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도코모모, 도시사회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성부의 작은 일본 전고개 혹은 本町>이 있다.

사진작가 그레고리 크루드슨의 작품과
영화 <고스트 스토리>

공간에 배인 슬픔

한적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무료하기까지 한 미국 교외 중산층 거주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실은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포를 내포한 공간. 교외 지역의 이런 섬뜩한 온도는 '컬트의 제왕' 데이비드 린치를 비롯한 많은 감독들이 미국인의 심리를 드러내는 배경으로 사용해왔다. 미국 텍사스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데이비드 로워리 감독의 <고스트 스토리> 역시 이런 한적한 공간의 공기를 바탕에 두고 살펴보기에 더없이 흥미로운 작품이다.

한 장의 사진처럼 치환되는 장면

작곡가 C(케이시 애플렉)와 그의 부인 M(루니 마라)이 함께 기거하는 공간은 교외의 낡은 집이다. 영화의 시작 지점, 이들은 이사를 계획 중인데 무료한 이 공간을 떠나고 싶어 하는 M과 달리, C는 이 집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다. M은 자신의 말에 건성으로 응수하는 C가 영 마뜩치 않다. 하지만 둘의 이러한 미묘한 신경전은 곧 종식된다. 자동차 사고로 C가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때부터다. 시체 안치실에 누워 있던 C는 유령이 되어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때부터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내 M을 지켜본다. 영화의 전체는 C의 시선으로 처리되며, 그 외의 시선은 일체 개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차원이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유령이라는 제약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 슬픔, 고독 같은 것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다. 실제 텍사스에서 자란 데이비드 로워리 감독은 오래된 소도시에 대한 애착이





켰고, 갑갑한 이 도시를 떠나 큰 도시로 가려는 아내와 심하게 다투던 중 <고스트 스토리>의 이야기를 착안했다고 한다.

C의 유령은 시체를 덮었던 커다란 이불보를 그대로 뒤집어쓴 채 공간을 이동한다. 마치 걷고 있지만 발이 없는 듯 유영하는 이미지다. C는 병원에서 곧장 집으로 왔지만, M은 남편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영화를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압도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남편을 잃은 충격과 슬픔, 비통함을 짊어진 M이 이웃이 기운 내려며 놓고 간 파이를 먹는 장면이다. 카메라는 4분 동안 어떤 대사나 음악 없이,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앉아 꾸역꾸역 파이를 먹는 M의 행위를 묘사하는 데 집중한다. 한시도 쉬지 않고 파이를 먹고 있지만, 그녀가 먹는 파이의 어떤 맛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 행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상실의 슬픔과 아픔이다. 이때 카메라라는 프레임 안에 그 아픔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하는 유령 C를 위치시킨다. M의 손은 파이를 먹느라 몹시 바쁘지만, 그 행동을 보면서도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C의 상태 때문에 마치 정지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옛날 브라운관을 보는 듯한 1.33:1의 사각 프레임 안에 놓인 두 연인의 모습이 거대한 미술관 속 한 장의 사진처럼 치환된다. 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숨죽이게 만드는 집약된 긴장의 순간이다.

공간이 이야기를 만든다

데이비드 로워리 감독이 C가 있는 이 쓸쓸한 교외의 풍경을 담기 위

해 불러온 이미지는 미국 사진작가 그레고리 크루드슨의 작품이었다. 미국 교외의 전원주택, 평범한 중산층의 이미지를 포착해내는 그레고리 크루드슨의 작업은 그 소재의 평범함과 달리,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괴한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를 사진으로 옮겨온 듯, 이미지는 이미 일어난, 혹은 곧 일어날 사건의 분위기로 팽배해져 있다.

식탁 앞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는 남과 여는 따뜻함보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며, 어두운 밤 집 앞에서 어떤 광선 아래 서 있는 남자는 SF적인 기괴함에 노출된다. 슬립을 입고 폭 꺼진 거실 바닥 한가운데 누워 있는 여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어떤 사건의 전말을 예측하게 만든다. 문이 열린 채 전봇대 앞에서 서 있는 차, 욕조에 우두커니 몸을 담고 있는 여성 등 크루드슨이 포착한 인물들은 공간의 조명과 인물의 표정만으로도 결코 평범하지 않게 작화된다. 흠긋 보고 지나치지 않고 사뭇 유심히 관찰하면, 공간 속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씩 의미를 가지고 감지된다. 마룻바닥에 널려 있는 파편이나 발 밑의 피 같은 얼룩 등은 스토리를 예측하는 촉매제가 된다. 크루드슨의 사진작업이 이렇게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건 그만의 특이한 작업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촬영팀을 구성하고 장면을 연출한 후 후반작업을 통해 수정하고 편집하는데, 이는 영화 촬영과 거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미국 교외의 중산층이라는 현실적인 바탕 위에, 마치 가상의 사건이나 SF적인 순간을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모노톤에서 벗어난 강렬하고 다양한 색채의 배열, 사물과 인물들의 배치를 통해 우리는 즉각적으로 신문에 날 법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으리라 예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익히 아는 교외의 하루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센 충격 뒤에 다가오는 정서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속, 배경의 한 구석에 위치한 삭막하고 고독하며 권태롭기까지 한 인물들의 심상이다. 이렇게 정적인 가운데 공포의 스토리를 내포한 크루드슨의 사진을 보고 난 후 다시 돌아와 <고스트 스토리>를 보면, 영화의 많은 장면이 크루드슨이 묘사한 적막한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고스트 스토리>는 어쩌면 크루드슨의 사진에서 '데이비드 린치'적인 충격적인 사고와 사건이 지난 후의 정서적 상실을 묘사한 작품일 것이다. 갑작스런 차 사고라는 비극적 사건 이후, 이제 생을 떠나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선뜻 떠나지 못하는 C의 유령. 그의 슬픔이 이 공간의 우울한 이미지 안에서 한층 더 깊게 여운을 남긴다.

글 이화정, 씨네21 기자

2018 CALENDAR

2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2017-2018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2017-2018 선정 예술가는 다원예술 분야 7명, 음악/사운드 분야 2명, 전통기반창작예술 분야 4명(팀) 등 13명(팀)이다. 약 1년간의 인큐베이팅 끝에 퍼포먼스, 전시, 공연, 현장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선보인다.

기간 2017년 12월 8일(금)~
2018년 2월 28일(수)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스튜디오 M30

문의 02-2676-4300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문화철도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5

- 제35회 젊은이의 음악제(~2.9)
- 연극 <리차드 3세>(~3.4)

6

- 뮤지컬 <레드북>(~3.30)
- 뮤지컬 <홀연했던 사나이>(~4.15)

7

- 전시 <소화(小話) ; 찔막한 이야기> (~2.7)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 공연 <한국의 문화유산>(~2.8)
- 가족발레극 <댄싱 뮤지엄>(~2.11)
- 연극 <3월의 눈>(~3.11)

12

13

- 일우 기획전 <보이지 않는 것을 공기 중에 배열하는 기술>(~2.13)
-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기념 음악회 <사라 장과 17인의 비르투오지>
- 전시 <In Certain Place>(~2.13)

14

- 개인전 <송동: 무용지용>(~2.14)

19

20

- 골든오페라 갈라 콘서트
- 박소현의 해설이 있는 바이올린, 비올라 독주회 <알고나면 쓸데 많은 클래식>
-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 퀸틴 블레이크展>(~2.20)

21

- 곤지암 플루트 페스티벌 2018
- 연극 <가지>(~3.1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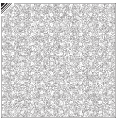
27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오시에 오시게>(~2.28)
- <안소현 개인전 : 안온한 시간들> (~2.27)
-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 연극 <아마데우스>(~4.29)
- 뮤지컬 <닥터 지바고>(~5.7)

28

- 전시 <친구의 발견>(~2.28)
- <Dream 2018 : 송형노 기획 초대전>(~2.28)
- 국립창극단 신창극시리즈1 <소녀가>(~3.4)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THU

1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팬텀서비스(vol.1)>(~2.1)
- 연극 <Y: 미지수의 시간>(~2.1)
- 연극 <체흐와 이오네스코의 산책>
(~2.18)
- 우리 이야기로 만나는 <템페스트>
(~2.21)
- 전시 <사각사각>(~2.25)

8

- 2018 크로스오버심포니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 창극 춘향실록 <춘향은 죽었다>(~2.9)
- 연극 <로퐁한 유랑극장>(~2.25)
- 한중일 올림픽 로드 <한중일 대표작가
서예전>(~3.25)

15

22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플래시메모리의 형제들>(~2.25)

FRI

2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기원공연
<중요제약>(~2.3)
- 2017 창작산실 연극 <깨비가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2.11)

9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금지된 계획>(~2.1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식
- 서울시향2018 <티에리 피셔와 르노
카뮈송>(~2.10)
- 연극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다>
(~2.11)
- 연극 <미저리>(~4.15)

16

- 2018 설맞이 대공연 <한판놀개>(~2.17)

23

- 2017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최종공연
- 연극 <무순 6년>(~2.25)
- 연극 <암전>(~3.4)
- 뮤지컬 <프리포즈 못하는 남자>(~3.25)

SAT

3

- 2017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선정작 <중립국>(~2.3)
- 아이와 함께하는 마음 힐링콘서트 -
전수연의 피아노 숲
- <서울 코믹월드 2018>(~2.4)
- 연극 <선을 넘는 자들>(~2.11)
- 연극 <오셀로-질투는 나의 힘>(~2.28)

10

- 한마음살림장
-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더 콘서트
'김홍도 vs 신윤복'
- <제8회 스카우트展>(~2.10)
- 뮤지컬 <요한계시록>(~4.14)
-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4.15)

17

- 박영숙 사진전 <두고 왔을 리가 없다>
(~2.17)
- 크마양상들의 협주곡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24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환영 환영>(~2.25)
- 한마음살림장
- 토요일은청이좋아
- 전시 <한국의 후기 단색화>(~2.24)
- 지용 리사이틀 <I AM NOT THE SAME>
- 뮤지컬 <찰리찰리>(~3.11)

SUN

4

- 2017 서교예술실험센터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작가
단체전(~2.4)
- 전시 <경계 155_BORDER 155>(~2.4)
- 연극 <블라인드>(~2.4)
- 년번벌 코미디 퍼포먼스
<웅알스>(~2.4)
- 뮤지컬 <팬레터>(~2.4)

11

-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시
<피어라 시민청>
- 연극 <경식야 사랑해>(~2.11)
- 전시 <랑데부, 그녀를 만나다 -
오프꾸뛰르 장갑 & 향수 아트전> (~2.11)
- 연극 <연체인>(~2.11)
- 뮤지컬 <울속업>(~2.11)

18

- 전시 <별집도시와 소리숨바꼭질!>
(~2.18)
-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2.18)
- 전시 <올해의 작가상 2017>(~2.18)
- 전시 <종이와 콘크리트: 한국 현대건축
운동 1987-1997>(~2.18)
-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2.18)

25

- 학전 어린이 무대 <고추장 떡볶이> (~2.25)
- 연극 <늘근도둑 이야기>(~2.25)
- 가족뮤지컬 <어른동생>(~2.25)
- 전시 <망각에 부치는 노래>(~2.25)
- 명품 추리사극 <여도>(~2.25)
- 뮤지컬 <최후진술>(~2.25)
- 가족뮤지컬 <캣 조르바>(~2.25)

THU_01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팬텀서비스(vol.1)>, 돈설편

육체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아날로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실체 없이 최적화된 정보값을 제공하는 일이 '시대정신'처럼 보일 때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몸을 소유한 사람보다 유령을 위해, 육체에서 자유로운 유령이 되기 위한 서비스(Phantom Service)를 제공받으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일시 ~2월 1일(목) 오후 7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2만 원

문의 02-2676-4333

FRI_02



2017 창작산실 연극 <개비가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

전래동화 속 도깨비와 디지털인 영상 콘텐츠 기술이 접목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가족연극이 탄생했다.

일시 2월 2일(금)~11일(일) 화~금 오후 7시,

수·목·일 오후 1시, 토 오후 1시·5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1600-2238

SAT_03



2017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선정작 <중립국>

전쟁의 피해를 입은 한 중립국의 마을. 식량조차 부족한 마을의 재건을 위해 유지들이 모인다. 모두가 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상황. 막막하고 절박한 이들은 무대 위 자신의 생존이자 실존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노력당한다. 그 기괴함이 현실적이라 더 섬뜩한 이 사건의 절벽 끝엔 누가 서 있을 것인가.

일시 ~2월 3일(토)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43-9336



연극 <선을 넘는 자들>

삶이 절박한 사람들이 있다. 벼랑 끝에 몰린 듯하고 자신과 이 세계는 동일한 질서에 속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순간에 직면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 그들은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정착하지 못한 낙오자일 수 있고, 찾아간 낯선 땅에서는 부적응자일 수 있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가 시작이다.

일시 2월 3일(토)~11일(일) 화~금 오후 8시,

3일 오후 7시, 10일 오후 3시·7시,

4일 오후 2시·6시, 11일 오후 3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70-7918-9077



연극 <오셀로-질투는 나의 힘>

'퍼포머그룹 파란달'이 선보이는 <오셀로-질투는 나의 힘>은 작품의 배경을 동시대의 한국으로 가져와 극의 몰입감을 높인다. 질투와 시기심을 현대인의 상승 욕구와 불안한 심리로 확장하며 시대를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로 존재하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성을 부각시킨다.

일시 2월 3일(토)~28일(수)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3시

(15일 오후 4시, 16일 오후 4시)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10-2021-1639

SUN_4



2017 서교예술실험센터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작가 단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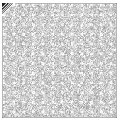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시각 분야에 선정된 우수작가 5명의 신작을 최초로 선보이는 쇼케이스 전시가 열린다.

일시 ~2월 4일(일) 오후 1시~8시(월·공휴일 휴관)

장소 탈영역우정국 지하, 1층, 2층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7218



MON_05



연극 <리차드 3세>

15세기 영국,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못생긴 꿈추라는 이유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요크가의 셋째 아들 글로체스터. 콤플렉스 속에서 성장한 그의 비틀린 욕망은 점점 커지고 빼앗기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탐하기 시작하는데... 배우 황정민의 10년 만의 연극 복귀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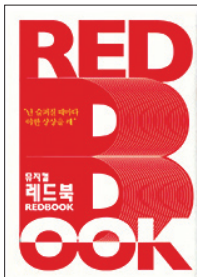
일시 2월 5일(월)~3월 4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
(월 공연 없음, 2월 15~16일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R석 8만 8천 원, OP석 7만 7천 원,
S석 6만 6천 원, A석 3만 3천 원

문의 02-6925-5600

TUE_06



뮤지컬 <레드북>

여성의 성과 사랑이라는 신선한 소재, 탄탄한 구성으로 호평을 받은 <레드북>이 돌아온다. 타인과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해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간다.

일시 2월 6일(화)~3월 30일(금)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2월 14일
오후 4시·8시, 2월 15~16일 오후 6시)

장소 세종M씨어터

관람료 R석 8만 5천 원, S석 7만 원, A석 5만 5천 원
문의 02-399-1000



뮤지컬 <홀연했던 사나이>

1987년 불안한 꿈을 안고 살았던 '삿별 다방' 사람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가 창작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다. 일상에 갇힌 사람들에게 '꿈꾸는 순간'의 유쾌한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2월 6일(화)~4월 1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문의 1577-3363

WED_0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 공연 <한국의 문화유산>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이어져온 고귀하고 소중한 전통예술. 평창올림픽을 맞이하여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선보인다. 판소리, 처용무, 강강술래, 가곡, 아리랑, 판굿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일시 2월 7일(수)~8일(목) 오후 8시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2-580-3300



가족발레극 <댄싱 뮤지엄>

세계 명화 퍼레이드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발레 이야기. 화려한 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에 미디 어아트까지 다양한 예술을 모아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한 동심의 세계를 펼친다.

일시 2월 7일(수)~11일(일) 목·금 오후 3시·7시,
토·일 오후 2시·5시(7일 전석 매진)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1층) 4만 원, S석(2, 3층) 2만 원

문의 02-3442-2637



연극 <3월의 눈>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3월의 눈>이 3년 만에 돌아온다. 재개발 열풍으로 한평생 일구어 놓은 집 한 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노부부. 정작 그들은 담담히 일상을 지내지만 이들을 제외한 주변은 시끌벅적하기만 하다. 급변하는 시대에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묵묵히 담아낸 작품이다.

일시 2월 7일(수)~3월 11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
(화 공연 없음, 2월 12, 15, 16일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문의 1644-2003

THU_08

**창극 춘향실록 <춘향은 죽었다>**

1999년 KBS 역사 스페셜에 방영된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었다> 다큐멘터리에서 받은 인상(印象)과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신념과 절개, 지조의 상징인 춘향에게 소리광대들이 올리는 헌사(獻詞)이다.

일시 2월 8일(목)~9일(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평창 동계올림픽성공기념 전석 1만 원

문의 02-580-3300

**연극 <로프찬 유랑극장>**

1945년 해방에서 1950년 전쟁까지, 이념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를 하룻밤 사건으로 응축시켜 보여준다. 빨치산과 토벌대 사이에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새재마을에 온 유랑극단을 통해 전쟁과 인간, 삶과 연극을 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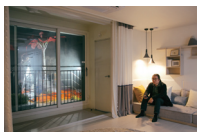
일시 2월 8일(목)~25일(일) 화~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12, 15, 16, 19일 공연 없음)

장소 CKL 스테이지

관람료 일반석 3만 원

문의 02-928-8802

FRI_09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금지된 계획>, 송주호**

21세기의 공상과학적 상상력과 가설은 20세기적 몽상의 역사와 달리 인류의 진취성을 엿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그 진취성은 인간의 연극적 성향이 작동하면서 징후적으로 갱신된다. <금지된 계획>은 스페이스 오페라의 요소와 인간의 연극성을 다룬다. 무대라는 가설의 우주 환경이 연극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에 관한 공연으로 총 2부작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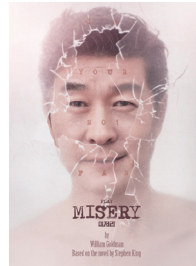
일시 2월 9일(금)~11일(일)

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4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2만 원

문의 02-2676-4333

**연극 <미저리>**

동명의 소설과 영화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미저리>가 무대에 오른다. 우연한 사고로 '애니'에게 목숨을 빚진 후 '애니'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픈 몸으로 탈출을 감행하는 인기 소설 <미저리>의 저자이자 유명 소설가 '폴'역을 배우 김상중, 김승우, 이건명이 맡았다. 때로는 상냥한 소녀팬이 되고, 때로는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애니' 역은 배우 길해연, 이지하, 고수희가 맡아 열연한다.

일시 2월 9일(금)~4월 15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공휴일 오후 2시·5시,
일 오후 2시(월 공연 없음, 2월 15일·3월 6일
공연 없음)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R석 7만 7천 원, S석 5만 5천 원

문의 1544-1555

SAT_10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더 콘서트
'김홍도 vs 신윤복'**

미술작품과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예술 융합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별 화가의 작품들을 클래식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두 화가 김홍도, 신윤복의 작품들을 클래식 큐레이터의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일시 2월 10일(토) 오후 12시 30분~3시

장소 서울동화문국악당 공연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66-7623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다양한 인물 군상과 크고 작은 사건들, 무수한 에피소드를 담은 방대한 규모의 원작을 4명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영리하게 집약했다. 아버지의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측하며 형제들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작품의 본질적 물음인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선과 악,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일시 2월 10일(토)~4월 15일(일)
월·수~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화 공연 없음)
장소 수현재씨어터
관람료 일반석 6만 원
문의 02-744-7661

TUE_13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기념 음악회 <사라 장과 17인의 비르투오지>

예술의전당과 깊은 인연이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을 비롯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들이 모였다. 비탈리 <샤콘느>, 비발디 <사계>, 피아졸라 <사계> 등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일시 2월 13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문의 02-580-1300

FRI_16



2018 설맞이 대공연 <한판놀개>

무술년 새해를 여는 국립국악원의 설맞이 공연이다. 소리꾼 김용우와 국립국악원 단원들의 신명나는 한판, 한국 대중 아가펠라의 정점 제니스의 무대와 마법 같은 샌드아트, '2017 동요부르기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리꽃심 중창단'의 맑은 노랫소리를 만날 수 있다.

일시 2월 16일(금)~17일(토) 오후 3시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2-580-3300

SAT_17



박영숙 사진전 <두고 왔을 리가 없다>

이번 전시는 나이 든 여성들이 세월 속에 숨겨둔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박영숙의 신작 프로젝트 <여성 서사(敍事) 여성 사물(事物)>의 첫 전시이다. 이 작업은 한국사회의 한 여성으로 살아온 80~90대들과의 허심탄회한 인터뷰에서 시작되었다. 여성들의 삶 속에 얹힌 다양한 사연을 통해 현시대의 여성들을 조망해보는 자리이다.

일시 ~2월 17일(토)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토·공휴일 오전 11시~오후 6시 30분(일 휴관)
장소 한미사진미술관
관람료 성인 6천 원, 학생 5천 원
문의 02-418-1315

THU_22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플래시메모리의 형제들>, 하상현

목격한 교통사고 장면과 쓰러지는 몸은 끊임없이 다시 호출된다. 눈앞으로 돌아온 이 몸들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이 형상들은 머리와 다리가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개의 건조한 입체들이다. 시간과 몸이 쪼개지는 순간들 속에서,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형상으로 분열된다. <플래시메모리의 형제들>은 이 순간들이 남기는 흔적을 따라간다.

일시 전시_2월 22일(목)~25일(일)
오후 3시~9시 30분
퍼포먼스_2월 22일(목)~23일(금)
오후 8시, 2월 24일(토)~25일(일) 오후 3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1층 스튜디오 M30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3

SAT_24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환영 환영>, 왕복선 프로젝트

‘천사’들은 그저 죽은/반짝이는 이미지와 숫자 그리고 기록들로 떠돌아다닌다. 천사의 활동은 숫자로 저장된다. 여기에 천사의 몸은 없다. 데이터만 존재할 뿐이다. 데이터로 판단하고 바라볼 뿐이며 데이터로 천사의 유무, 천사의 환영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육신은 이미지화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천사가 되어간다.

일시 2월 24일(토)~25일(일) 오후 5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2만 원

문의 02-2676-4333

SUN_25



전시 <망각에 부치는 노래>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에서 잇는 행위와 그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망각에 부치는 노래’는 단지 기억을 잊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잊는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내려간 이야기이다.

일시 ~2월 25일(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598-6246

TUE_27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오시에 오시게>, 조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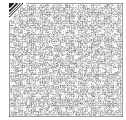
승영과 성진은 힘을 합쳐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 목숨을 건 한판에 도전한다. 가진 것은 몸뚱아리 하나뿐. 믿을 것은 이야기가 가진 힘 하나뿐. 그들의 계란으로 바위 치는 도전이 뮤지컬과 판소리의 결합으로 펼쳐진다.

일시 2월 27일(화)~28일(수) 오후 8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1만 5천 원

문의 02-2676-4333



연극 <아마데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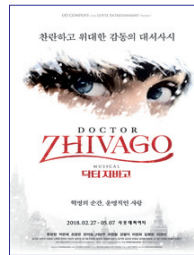
피터 셰퍼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담은 작품으로 음악을 향한 갈망은 닮았지만 타고난 재능은 달랐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야기이다.

일시 2월 27일(화)~4월 29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7시(월 공연 없음)

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관람료 VIP석 9만 9천 원, R석 8만 8천 원,
S석 7만 7천 원, A석 6만 6천 원

문의 1577-3363



뮤지컬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유일한 장편소설인 <닥터 지바고>는 러시아 혁명과 전쟁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대서사시이다. 20세기 러시아 혁명기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의사이자 시인 ‘유리 지바고’와 아름다운 여인 ‘라라’의 러브스토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2월 27일(화)~5월 7일(월)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7시(월 공연 없음)

장소 샤롯데씨어터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88-5212

WED_28



국립창극단 신창극시리즈1 <소녀가>

국립창극단은 동시대 예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예술가들과 새로운 스타일의 창극을 제작하는 ‘신(新)창극시리즈’를 시작한다. 첫 번째 주자는 이자람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며 겪는 신체와 심리 변화가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겁지 않게 풀어갈 예정이다.

일시 2월 28일(수)~3월 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2280-4114



원제 아벨만의 재판

원작 이근상 각색·연출 문새미

출연 김은석 이해원 이기돈 이철희 심광준 이기현 목소리 출연 이문수
각색지문 김만정 무대 신승철 조명 신동선 음향 유육선 사진 나승열
촬영분장 백지영 그래픽 강필재 기획 박세희 조연출 최봉문 후원 서울문화재단

2018
01.26
—
02.03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월요일 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전석 30,000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이 공연은 서울문화재단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공연문의 T. 010 4217 8184 E. saemimoon3@gmail.com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1544 1555 / ticket.interpark.com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엽서

안시하 님(경기도 과천시)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도서관(서울시청 근처).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사. 윤동주 시인의 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산문집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사에서 다루어진 산문집의 글귀를 통해 시인의 내면과 시세계를 새롭게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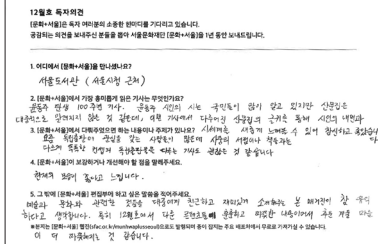
요즘 독립출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중의 서점이나 책들과는 다른 독특한 콘셉트로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기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현재의 모습이 좋습니다.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예술과 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대중에게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본 매체가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훈훈하고 따뜻한 내용들로 추운 겨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4인용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4시간 남짓한 저녁시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준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했고, 시간을 거슬러 그것을 맨 처음 마주했을 때의 '끌림'과 그 순간을 관통했던 마음의 '홀림', 그리고 그 시간의 마디에 놓여 있던 '사람'을 이야기했다. 네 남자의 수다는 그렇게 겨울밤 잘 구워낸 군고구마처럼 붉고도 달콤하게 익어갔다.

축제팀 백승우, 지역문화팀 장재환, 예술교육팀 현의준

편집 후기

빈자리를 메우는 일은 쉽지 않다. 앞으로 두 번이 나 더 남았다. 조금만 버텨라. 당분간 편집 후기 의양도 두 배로 길어져야 할 듯. 오갱끼데스까.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장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윤선희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